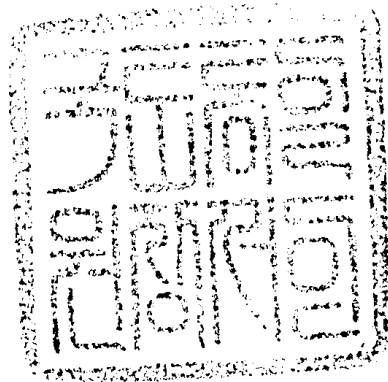


- I. 이 책자는 国土統一院의 政策調査研究計劃에 依拠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 II. 収録된 内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中共의 現代化 政策 研究

—Modernization Policy of Communist China—



研究執筆

責任者：朴東雲(韓國日報 論說委員 겸
統一問題研究所長)

參與者：李馨(韓國日報 論說委員)

洪淳一(韓國日報 論說委員)

安炳燦(韓國日報 外信部長待遇)

刊行責任 金德重(調査研究室 補佐官)

國土統一院 調査研究室

中共의 現代化 政策

<<要 約>>

中国史의 近百年은 西勢東漸(The Expansion of Europe)의 衝擊과 阿片戰爭(The Opium War)의 失敗以後 富強國家再建을 指向해 온 現代化(Modernization)의 몸부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中国共產主義運動도 그러한 歷史的文脈 위에서 檢討되어야 할 것인데 이점은 毛澤東의 論文『論人民民主專政』에서도 지적되어 있다. 鄧小平이 말한바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좋은 고양이 이다」는 吐露도 본시 그나라 共產主義가 現代化를 위한 하나의 選擇이었음을 示唆해 주고 있다.

그런데 1976年の 毛澤東死亡以後 中国大陆에서 발생한 일련의 變化는 華国鋒·鄧小平体制의 現代化路線이 共產主義의 原型보다도 「日本 모델」에 더큰 興趣를 느끼는듯이 관측되기도 한다. 西方을 向한 資本 및 技術導入의 擴大, 交流의 擴大에 따른 門戶開放政策, 勞動生産性的 向上위한 物質的 刺激에서 考慮, 大衆의 創發的積極性을 발휘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일련의 「民主化」措置등이 그러한 印象을 자아내게 한다. 華国鋒은 1979年 6월에 열린 제5기 全國人民代表大會 제2차會議에서 農業, 工業, 國防, 科學技術에 걸친 「네가지 現代化를 實現한다는 것은 政治의 民主化를 實現하는 것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그 全人大는 刑法, 刑事訴訟法, 中外合

資經營企業法(外資導入法)과 選舉法등 7개의 法律을 制定하였는데 그 內容에는 人權保障을 위한 罪刑法定主義, 司法權의 獨立, 外國人 投資의 利潤保護와 合作企業에서의 外資의 上限線撤廢, 選舉에서의 複數立候補 許容등이 包含된다. 하지만 지금껏 「黨의 領導」나 「프롤레타리아 獨裁」등이 계속 固執되고 있으며 自由市場經濟는 容納되지 않고있는 實情이다. 말하자면 共產主義의 「原則性」과 새로 부각되는 「實用主義」의 調和線을 어디 긋는가가 持續的 關心事로 남아있는 셈이다.

經濟的 側面에서 中共의 現代化作業은 방대한 勞動力과 天然資源의 保有에도 불구하고 그 推進力이 될 內資調達이 어려운데다가 外資導入도 順調롭지 않아 지금껏 難航을 거듭하고 있다. 그래서 종전의 方針을 크게 전환하여 國際交易에 열을 올리고 조인트 벤추어等 外資와 海外技術을 동시에 들여올 수 있는 方法을 모색하고 있으나 그 역시 近代化推進에 흠족할만한 成果를 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統計가 示唆하는 바에 依하면 지난 10數年동안 勞動이나 資本의 生産性 向上도 擔保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中共의 4개 近代化計劃은 豫定보다 많이 지연될 可能性이 크다고 보아야 하겠다.

國際協力을 불적에 中共은 78년초 「새로운長征」이라는 4大現代化運動을 추진하면서 이에 必要한 先進技術 및 外資導入을 위해 積極外交를 전개했다. 對蘇牽制戰略을 兼한 中共外交는 그 政策基

調인 「3世界論」을 유연하게 적용, 日・中平和友好條約締結과 對美修交등을 서두르면서 西方先進国들과의 協助關係를 구축했다. 79年 6月の 第5期全人代第2次 회의에서는 法体系정비등 廣範圍한 內政改革과 함께 合作投資法을 制定公布함으로써 外資導入促進策을 마련했다.

그러나 對外關係變化로 인한 4대現代化의 차질 또한 간과할 수 없다. 全人代 第2次 會議은 4대現代化의 基幹이 되는 10개년 經濟計劃을 修正, 3개년 「調整期間」을 설정했는데 이는 計劃自体가 너무 意欲的이었던 탓이지만 對베트남國境戰에 따른 國防費 초과지출의 影響도 적지 않은 것으로 分析된다. 華・鄧聯合体制가 「自力更生」에서 점차 탈피하면서 4대現代化를 위해 취한 開放政策의 성과는刮目할만 하지만 그만큼 國內반대세력의 반발도 클뿐더러 國際情勢變化와는 깊은 函數關係가 있다 하겠다.

國內의 政治版圖에도 여러가지 不確定要因이 觀察되기는 하나 現代化 推進自体에는 國民的 合意의 成立을 말할수 있을것 같다.

만약 中共이 今世紀내에 「現代化된 社會主義強國」으로서 美・蘇에 버금가는 勢力으로 登場한다면 이는 韓半島周邊의 國際的 力學關係에 커다란 變動을 가져올것이 틀림없겠다. 巨視的인 關心事중의 하나는 中共의 現代化가 곧 体制變化에 연결되면서 그 自由・民主化를 促進할 것이냐에 관한 問題提起이다. 그러한 可能性은 收斂理論 (Convergence theory) 과의 關係에서 前向的으로 排除되지 않으나 現段階에서는 速斷할바로 되지 못한다.

目 次

I. 中共現代化政策的 歷史的背景與 展開過程	1
II. 現代化的 未來像與 經濟的基盤	14
III. 現代化推進與 國際協力	31
IV. 現代化的 推進勢力與 政治版圖	49
V. 結 論	64
ABSTRACT	69

中共의 現代化政策研究

I. 中共現代化政策의 歷史的背景 展開過程

植民地民族主義(Colonial notionalism)의 風土위에 登場한 後進社會의 共產主義에 있어서도 가장 절박한 要請중의 하나로 되는 것은 나라의 近代化이다. 「西勢東漸」의 衝擊으로 말미암아 오랜 停滯의 잠으로부터 깨어난 後進國의 知識人들은 民族主義 혹은 共產主義로 分岐되면서 「救國의 道」를 찾게 되었는데 어느 경우건 ① 外國支配로부터의 獨立 ② 社會的 後進性의 克服 ③ 經濟 成長과 科學技術의 導入에 의한 國力增強 및 그 利益의 全社會的 均霑을 構想하게 된 것이다.

그러한 要請을 中國의 傑出한 民族主義者' 孫文은 三民主義 즉 ① 民族主義 ② 民權主義 ③ 民生主義로 表現했던 것인데, 한편 中國의 共產主義者들도 孫文과 그의 三民主義에 대해서는 相應한 評價를 아끼지 않았다. 다만 近代化를 추진하는 主体力量을 團結된 民族으로 보느냐 아니면 「프롤레타리아트」 내지 「勞農同盟」등 特定한 階級으로 보느냐에 중대한 差異가 존재했던 것이다.

나아가서 後進國이 先進國의 支配로부터 자체를 해방하려고 할 경우 先進國은 「敵」인 동시에 「模範」이기도 했던 錯雜한 事情이 얹혀 있었다. 즉 對抗과 依存의 交錯가 對先進國關係에서 觀

察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先進國이라는 概念의 내용은 상당한 期間에 걸쳐 「西歐」의 民主的 資本主義國家에 대한 指稱이나 다름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나 蘇聯이 1917年 「社會主義 10月革命」을 거쳐 새 國際的 力量으로 출현하게 되자 狀況이 달라졌다고 한다. 中共의 毛澤東은 1949年에 다음과 같이 썼다.¹⁾

“레닌은 1920年 『左翼小兒病』에서 러시아인이 革命理論을 찾아 헤매었던 경위를 썼다. 러시아인은 수십년간의 困難과 苦痛을 거쳐 겨우 마르크스主義를 찾아냈다. 中國의 경우도 10月革命前의 러시아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일이 많다. 封建主義의 壓迫은 마찬가지였다. 經濟와 文化의 後進性도 매우 닮았다. 두 나라가 모두 後進적이었으나 한결 더했다. 先進的인 사람들이 國家의 復興을 위해 辛苦를 꺼리지 않고 분투하여 革命의 眞理를 探求한 것은 동일했다.

1840年의 阿片戰爭 失敗이후 先進的인 中國人은 비상한 노고를 거듭하면서 西歐諸國으로부터 眞理를 探求하려 했다. 洪秀全, 康有爲, 嚴復, 孫中山(文)은 中國共產黨이 탄생하기 이전에 西歐로부터 眞理를 찾으려고 한 일단의 人物들을 代表하고 있다……나 자신이 青年時節에 배운 것도 그러한 부류의 것이다. 이것들은 西歐의 부르조아民主主義의 文化 즉 新學이라고 불리워졌으며 당시의 社會學說과 自然科學을 包含했다. 中國의 封建主義文化 즉 이른바 舊學과 對立한 것이다. 이러한 新學을 배운 사람들은 매우 오랜 기간 이런것이 中國을 구하리라는 일종의 自信을 갖고 있었

註1. 『論人民民主專政』, 毛澤東選集 第4卷

오랜 기간 이런것이 中國을 구하리라는 일종의 自信을 갖고 있었다...

帝國主義의 侵略은 西歐로부터 배우려했던 中國人의 꿈을 깨뜨렸다. 정말 이상한 일이다. 先生이 어찌서 학생을 侵略한단 말인가. 中國人은 西歐로부터 많은것을 배웠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 理想은 언제나 실현되지 않았다. 辛亥革命과 같은 全國的 規模의 運動을 包含하여 모두가 失敗하고 말았다. 國家의 狀態는 날로 惡化되었으며 環境은 사람들의 生活을 어렵게 만들었다. 疑問이 생겼고 불어났으며 발전하였다.....

러시아인이 10月革命을 일으켜 세계 최초로 社會主義國家를 건설하였다. 그때까지 당속에 파묻혀 外國人의 눈에 띄지 않았던 위대한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트와 근로인민의 革命的 정력이 레닌과 스탈린의 지도 밑에 火山처럼 폭발한 것이다. 中國人과 全人類가 러시아인을 종래와는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다..... 中國人이 마르크스主義를 찾아낸것은 러시아인의 소개에 의한 것이다... .. 1921년에는 中國共產黨이 結成되었다."

이상의 引用에서 主題論文과 관련하여 유난히 分析, 指摘될것은 무엇인가. 러시아건 中國이건 後進社會였으며 共產主義者들은 최초에 「後進性的 克服」과 國家의 復興」을 모색했다는 것이니 즉 그들 나름으로 近代化를 모색한 꼴이다.

또 中國의 경우 그 知識人들은 먼저 西歐에서 학습하여 西歐方式으로 近代化를 이룩해 보려고 했으나 ① 西歐의 中國侵略에

대한 感情的 반발 ② 西歐式 方法은 歷史와 社會經濟的 條件등이 다른 中國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는 사정등으로 좌절을 겪어야만 했다는 풀이이다.

그래서 失望에 젖어있던 중 러시아에서 일어난 10月革命을 보고 西歐方式 대신 共產主義方式으로 現代화와 富強國家建設을 꾀하게 되었다는 식이다. 그리한 毛澤東의 回顧에 보듯이 後進社會의 共產主義者들은 이른바 「階級鬭爭」이전에 나라의 後進性克服과 現代화를 갈망한 셈인것 같다. 이러한 局面은 後進社會의 共產主義를 研究할적에 지극히 주목해야 할 現象이라고 볼것이다.

그 毛澤東은 1976年에 死亡하였다. 그러나 오늘의 中共에서도 世稱 華國鋒・鄧小平 體制아래 現代化的 志望은 連綿히 이어져 있으며 오히려 그 渴望度가 한결 더한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毛以後의 現代化的 方式, 그 「模型」이 과연 典型的인 共產主義方式인지 아닌지는 現代의 標榜이나 常面한 現象보다도 새로운 示唆를 同伴한 運動의 方向과 앞으로의 發展論理를 測定하는데서 중대한 關心事로 되지 않을 수 없다. 제 2차 世界大戰의 終結 이후 적잖은 아시아 後進地域의 政治人과 知識人들은 日本의 戰後復興과 中共의 威信向上을 보고 자기 나라의 近代化를 추구함에 있어 흔히 「日本方式이나 中共方式이나」를 論議해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하나 中共의 現代化路線 자체가 毛以後에 日本方式을 닮아가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巨視的으로 國際政治의 이데올로기分野와 現實的인 政治版圖에 지대한 影響을 미치게 될것이 틀림없다고 보

게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速斷을 不許하는 不確定要因이 여러 모로 錯雜되어 있는 實情이다.

1976年의 中共 政治情勢는 실로 多事多端했다. 그해 1月 8日 中共의 第2人者이며 世界的으로 저명한 政治・外交・行政人중의 한사람이던 周恩來가 享年 78歲로 死亡하였다. 이 報道가 전해지자 유엔本部가 半旗를 드리운 가운데 美國의 포드大統領은 周恩來를 애도하면서 「現代 中共史 뿐만아니라 全世界에 발자취를 남긴 卓越한 指導者」라고 불렀으며 「美・中共關係 改善에 미친 功績을 감사」한다고 했었다. 그런데 周恩來는 1975年 1月 13日 中共의 第4期 全國人民代表大會에서 한 政府活動報告에서 「今世紀내에 農業, 工業, 國防, 科學技術의 現代化를 全面的으로 實現하여 우리나라의 人民經濟를 世界의 前列에 세운다」는 課業을 강조한 世稱「實用主義」者였다. 또 그 人民代表大會는 1月 17日字 決議를 통해 周恩來의 報告를 「承認」하는 동시에 「20년 가량의 時間을 걸면 반드시 今世紀내에 우리나라를 現代化한 社會主義 強國으로 건설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고 했었다. 하나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毛澤東 在世時였다. 그래서인지 周恩來의 同報告는 毛澤東이 「自力更生을 主로하고 外國援助의 획득을 補助로 삼아, 盲信을 打破하며 獨立自主로 工業을 일으키고 農業을 振興시키며 技術革命과 文化革命을 進行하고 奴隸思想을 타도하며 敎條主義를 물리치고 外國의 좋은 經驗을 진지하게 배우며 外國의 좋지 못한 經驗도 꼭 연구하여 이를 경계할것. 이것이 우리의 路線이다」고 強調했음을

상기시키면서 「우리는 영원히 이 路線을 堅持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다.

그해 1月の 周恩來 死亡에 이어 4月에는 北京의 天安門廣場에서 周를 추모하는 수십만 군중들이 文革過激派의 武裝力에 의하여 유린당한 4·5暴動이 발발했었다. 文革派의 所行으로 보이는 北京駐在 蘇聯大使館에 대한 4·29爆破事件, 그리고 7월 28일 唐山을 中心으로한 大地震등이 잇따랐던 것이다. 中共의 民心이 뒤숭숭한 가운데 第1人者 毛澤東도 9月9日 82세를 一期로 死亡하고 말았다. 그무렵 1966년부터 得勢한 文革派와 穩健派(文革派에 의하여 走資派라고 규탄되기도 했던 實用主義勢力)간의 權力鬭爭이 全國到處에서 陰性的으로 꺼질줄 모르는 불씨를 안고 있었다. 毛澤東은 兩大勢力의 均衡을 바랬던지 비교적 派閥色이 없어 보이던 華國鋒을 그해 2月부터 中共中央委 第1副主席 兼 國務院 總理로 登場시키고 있었다.

華國鋒은 毛澤東 死後 한달을 넘기지 않고 王洪文, 張春橋, 江青(毛의 妻), 姚文元등 「文革派」巨物級들을 소위 「反黨 4人幫」으로 斷罪하여 肅清해 버렸다. 이는 쿠데타方式의 公安力量 動員의 결과였다. 그러한 急激한 執權인수록 새支持基盤의 形成이 시급하였다. 華는 그 執權基盤을 黨齡이 오랜 元老들과 軍部에 찾았는데 그중에는 葉劍英, 李先念, 陳錫珪, 紀登奎, 汪東興등이 包含되었고 또 이들은 文革派에 의하여 앞서 숙청당했고 鄧小平등의 復權을 바라고 있었다. 그러한 執權經緯는 華國鋒体制의 「毛以後」

政策路線의 테두리를 測定케 하는데 족하였다.

① 文革派는 「思想優先」, 「政治第一」등 口號下에 周恩來의 現代化・實用主義 傾向을 이른바 「唯生産觀點」이니 「走資派」的 偏向이라고 규정 지으려 했다. 王洪文은 73年의 十大大會에서 한 黨規約 改正에 관한 報告에서 「文化革命은 몇번이고 施行해야 한다」느니 「서슴치 않고 潮流를 拒逆하는 革命精神을 가져야 한다」고 떠들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毛澤東式 原則論 固守를 名分삼아 現代化로 쏘리는 時代潮流를 무시 하겠다는 꼴이었다. 華는 그들 政敵을 숙청하고 登場한 만큼 政策路線도 對照的이어야 했다.

② 周恩來를 따르던 黨元老들은 實用主義에 관심이 컸고 한편 軍部勢力은 蘇聯의 軍事的威脅에 맞설만한 最新裝備에 至大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만큼 모두가 「現代化」를 바랬던 것이다.

그리하여 1976年 10月 24日 北京의 天安門廣場에서 벌어진 大群衆集會를 통해 華國鋒체제의 正式出帆이 宣布된 다음날, 中共黨機關紙 人民日報, 理論誌 紅旗, 軍機關紙 解放軍報의 共同社說은 華體制를 擁護하면서 그 政策路線이 「農業과 工業, 國防과 科學技術의 現代化를 이룩하여 中共을 今世紀내에 강력한 社會主義國家로 건설」할 것과 「反帝, 反修正, 反覆權」을 基調로 하는 「第3世界」 置重外交를 指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周恩來식의 現代

화를 추구하는 實用的 現實主義路線과 毛澤東식의 原則論을 아울러
想起케 했으나 中共의 國家的 需要와 時代的潮流에 비추어 날이
갈수록 두드러질것은 前者라고 觀測케 하였다.

工業化의 大躍進運動을 發起하여 今世紀안으로 中共經濟를 世界
的 先進水準으로 발전시킨다는것은 이미 不退轉의 것으로 되었고
이에 관해서는 中共의 國民的合意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方法論에 궁금증이 남는다. 經濟建設에서의 「自力更生」과
「國際協力」의 調和線이 문제시 되었던 것이다.

그러던중 77年 7月 21日 中共黨中央委 10期 3次全員會議는 問
題人物 鄧小平의 完全復權을 결정, 발표하였다. 黨中央委 副主席
兼 國務院 副總理 그리고 中共軍總參謀長의 職責이 부여된 것이고
특히 對外政策의 前面先鋒將처럼 浮刻되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에
鄧小平은 만 74세의 高齡이었으나 氣力이 健壯했으며 프랑스留學生
출신의 西方通 元老였고 周恩來가 가장 아끼던 人材라고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1966年 「文化革命」이 소용돌이치자 「右傾走資
派」로 몰려 失脚당했으며 73년에는 다시 副首相등 要職에 復活
되었으나 76年 4月 天安門廣場에서 벌어진 騷動과 관련 4人幫
에게 배척당해 거듭 逐出당했던 것이다. 76年 10月 華國鋒이
非常手段으로 4人幫을 타도하자 그를 지지한 老壯幹部들 간에 鄧의
復權을 要求하는 목소리가 치열했고 마침내 다시 한번 登場한 셈이
다. 그는 政見은 한때 反毛, 反文革이라고 指目되기도 했으나 요
는 生産優先, 安定團結, 集團指導, 現代化 推進에 걸쳐 現實感覺을

지닌 實用主義였던 것이다. 어차피 文革派와 實權派간의 路線論爭은 「紅」(思想優先, 政治第一)이나 「專」(生産優先, 技術崇尚)이나, 그리고 「造反」이나 「團結」이나를 에워싸고 벌어져 왔었다. 그것이 鄧小平 復權으로 後者の 實用主義 路線의 定着을 象徵하는데 이르렀다. 毛의 生理的退場을 기다려 1966年以後 약 10年을 끌어온 派爭이 決着된 셈이다. 그리고 끝없는 革命의 高喊보다는 착실한 生産發展에 優先順位가 設定된다는 것은 中國의 心性의 徵表라고 알려진 「實事求是」에 協和感을 느끼게 할 可能性이 甚다.

77년 9月 12日 中共의 國家計劃委員會는 네가지 現代化를 추진하는 建設持針으로서 食糧, 鐵鋼生産을 總大將으로 삼고 電力과 鐵道의 普及을 先鋒隊로 삼는다면서 「강대한 基礎工業위에 先進技術 및 設備를 채용」할것이라고 했다. 中央統制下的 大企業優先政策을 강조하는 한편 地方産業에 대해서는 「自力更生」과 「群衆路線」을 力說하였고 나아가서 西方의 先進技術導入의 필요성을 示唆한것이다.

그러나 中共外交政策의 變化可能性은 지금껏 不透明하다. 毛時代 그대로 蘇聯을 제 1호 公敵으로 삼고 帝國主義도 배격한다는 이른바 「兩國反對」, 제 3世界尊重, 日本과 프랑스등 제 2中間地帶에의 接近, 기타 北傀지지와 台灣 「解放」등을 말하는 것을 보면 「原則外交」의 固守같이 느껴진다. 하나 中共의 國家利益은 現代化의 路에서 西方과의 經濟協力・技術導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對蘇牽制를 위한 고려도 있어 西方接近의 加速化를 내다보게 하는

一面이 있다.

1978年 2月末에 개최된 中共의 제 5기 全國人民代表大會는 華國鋒의 國務院工作報告를 승인한데 이어 新憲法과 새 國歌 및 10개년 經濟計劃을 採擇하였다. 그들의 新憲法은 毛澤東思想路線의 계승을 말하면서도 보다는 力點으로 「現代化된 社會主義強國建設」을 부각시켰다. 科學技術의 중요성을 獨立한 條目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法治司法制度라든지 大衆의 幹部批判權이나 百花齊放식 言論暢達을 비치기도 했는데 이는 民心收拾과 知識層의 積極的協力 導出을 노린 것 같다. 그들 나름의 現代化 概念이 西方의 것에 어느 정도 닮아간다는 추세를 짐작케 한다. 그 第10條는 生産意欲을 높이기 위해 文革時代의 思想的刺戟 대신 物質的刺戟을 줄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서 國際關係에 대해서는 前文과 第19條에서 과거의 「帝國主義, 社會帝國主義」反對를 이번에는 「社會帝國主義, 帝國主義 起大國」反對로 順序를 逆轉시켰다.

1979年 6月 第5期全國人民代表大會 第2次會議가 개최되었다. 華國鋒의 이번 國務院工作報告는 前次와는 대조적으로 政治보다 經濟에 뚜렷한 力點을 두었으며 經濟統計도 많이 밝혔다. 그들의 現代化作業의 本軌道進入을 測定케 했으나 「調整해야 할 問題點」도 적지 않다고 한다.

그는 앞으로 3年間 農業과 工業 및 人口增加에 「均衡的인 관계」를 設定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너무 많은 프로젝트에 일시에 착수한다든지 무턱대고 外國의 技術 및 工場導入에

꼭물한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였다.

또 輕工業을 重工業보다 빨리 成長시켜야 한다고 했다. 輸出 增大를 통한 現代化資金의 확보, 住民生活水準의 向上을 고려한 모양인데 이는 共產主義의 과거 經濟政策에 散見되던 「重工業 優先主義」와 다른 것이다. 農民, 勞動者의 收入을 生産의 增加에 따라 높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勞動生産性 向上을 위한 物質的刺戟을 부각시켰는데 이는 「文革」時代의 思想的刺戟論의 포기를 뜻한다. 先進科學技術의 導入, 國際經濟協力, 對外貿易의 확대를 강조하면서 國際적인 慣例와 時勢를 존중하리라고 비쳤다. 中共立場에서는 開放的政策을 의미하겠으나 韓國立場에서는 輸出商品構造와 國際經濟協力分野에 걸친 競合關係를 내다보지 않을수 없다. 나아가서 華의 報告는 78年 生産額이 前年對比로 곡물생산은 7.8% 증가했고, 工業生産은 13.5% 증가했다고 자랑한 것이다.

華國鋒의 報告는 또 「네가지 現代化를 實現한다는 것은 政治의 民主化를 實現한다는 것이다」고 말했는데 近代化 概念의 兩支柱로서 産業化와 더불어 民主化를 강조한 셈이다. 그 民主化없는 大衆의 生産意欲과 創造的積極性を 發揚할 수 없기 때문에 長期的으로 보아 現代化의 순조로운 進行이 不可能하리라는 견해였다. 이번 全人大는 오늘의 中共과 대조되는 과거의 林彪・4人幫時代를 「封建的팍쇼獨裁」라고 斷罪하였으며 法에 의한 人權保障을 표방하기도 했다.

이번 全人大는 「民主化」의 표방 밑에 刑法, 刑事訴訟法, 中外

合資經營企業法(外資導入法)등 7개의 法律을 制定하였다. 그 刑法은 中共建國後 최초로 制定된것으로 人權保障을 고려한다는 罪刑法定主義를 規定하고 있다. 刑事訴訟法은 警察, 檢察, 法院의 獨立的인 機能分擔을 規定했으며 公安機關이 被疑者를 拘留・逮捕할 때에는 書狀을 제시해야 하며 24시간 이내에 그 理由와 場所를 家族들에게 通知해야 한다고 했다.

中外合資經營企業法은 現代化를 위한 外國으로부터의 建設資金, 先進技術, 最新施設, 合作企業 導入의 길을 넓히면서 종래 49%라던 外資의 上限線도 撤廢하였다.

全國人民代表大會 및 地方各級人民代表大會選舉法은 複數立候補의 길을 터놓았고 縣레벨까지도 直接選舉를 실시한다고 했다. 地方各級人民代表大會 및 人民政府組織法은 文革期間에 設立된 「革命委員會」를 廢止하고 首長制를 부활시키는 한편 中共의 憲法, 法律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立法權도 인정하였다. 人民法院組織法은 司法權의 獨立을 人民檢察院組織法은 檢察權의 獨立과 公安機關의 行패 방지를 규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中共 現代化 政策의 歷史的背景과 展開過程을 概觀할적에 얼핏보아 그것은 中國人의 近百年 悲願을 反映했으며 또 최근의 現代化 概念內容이 産業化와 民主化의 併行등 西歐의 것에 類似한 것으로 비칠지는 모른다. 하나 그것이 後進社會의 9億住民의 意識속에 定着하기 까지에는 오랜 세월이 걸릴 것을 차치하더라도 아직껏 마르크스・레닌主義라는 思想的인 굴레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며, 게다가 計劃의 차질이라든지 政治版圖 내지 國際氣流의 變化 여하에 따라서는 앞으로 어떤 激動이 초래되지 않을는지 간단히 속단할바 아니다. 持續적인 研究的 關心을 前提로 各論的分析에 移行하고자 한다.

Ⅱ. 現代化의 未來像과 經濟의 基盤

中共의 憲法 前文에까지 明示하고 있는 네가지 現代化가 궁극적으로 經濟的인 뒷받침없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것은 누구나 쉬 납득할 수 있는 일이다. 經濟的인 뒷받침이란 다름아닌 資金, 設備 그리고 技術에 의한 뒷받침을 말하는 것인데 그 세가지 모두가 지금 中共에게는 가장 不足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中共現代化의 未來像은 따라서 이 세가지 不足을 얼마나 빠른 時日內에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양상을 달리 하게 될것이 분명하다.

現代化를 위한 10個年計劃(1976~1985)에 의하면 中共은 오는 1985년까지 一兆元(6千億달러)의 돈을 각분야에 投資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같이 막대한 돈을 10年동안에 조달해내기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간 어려운것이 아니다.

中共의 財政規模

우리가 中共의 經濟를 論할때 시직부터 애를 먹는것이 바로 統計의 不在現象이지만 이러한 問題點은 現代化를 위한 資金 源출의 可能性을 測定하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提供해 준다. 中共의 財政投資能力을 가름하기 위해서는 그 財政收支의 規模나 內訳을 알아야하겠는데 이에 관한 데이터는 지난 60年을 마지막으로 전혀 발표된것이 없는 실정이다. 60年까지의 財政收入은

50 年の 65 億 2 千萬元에서 57 年の 3 百 10 億 2 千萬元 60 年の 7 百 億 2 千萬元으로 계속 膨脹일로를 걸어 온것으로 알려졌다으나 60 年代 들어서에는 各種經濟危機와 그의 調整 그리고 文革이라는 소용돌이를 겪으면서 사실상 財政規模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있다.公表된 數字는 아니지만 64 年の 財政收入은 中共政府가 발표한 「農業生産額에 대한 農業稅의 比重」 및 「財政收入 전체에서 占하는 農業稅의 크기」등 公式데이터에 따라 60 年度豫算額의 약 半인 3 百 50 億元 전후가 될것으로 推定되고 있고²⁾ 71 年과 72 年の 財政收入은 각기 新華社通信이 보도한 50 年の 10 倍强 11 倍强이라는 내용에 따라 71 年이 6 百 52 億元 72 年이 7 百 17 億元 안팎이 되지 않을까 推定되고 있는 터이다.³⁾ 그러니까 中共의 財政規模는 60 年을 계기로 72 年까지 急 下降線을 그리다가 77 年 부터 겨우 60 年規模의 財政으로 올라섰다는 얘기가 된다. 73 年 이후에도 統計數字가 発表되지 않기로는 마찬가지이지만 外交체널을 통해 수집된 情報에 의하면 73 年 歲入이 9 百 10 億元 歲出이 8 百 20 億元이고 76 年の 그것이 收支合쳐서 약 2 千億元 그중 5 % 에 該當하고 약 1 百億元이 赤字인것으로 推定되고 있다.⁴⁾

註；2) 日本防衛研修所第 1 研究室長・前田寿夫者 「中共의 經濟力」에서 推定

3) 同 前田寿夫의 77 年 12 月 6 日字 世界週報 「北京의 財政能力은 얼마나되나」-資金引上과 中國經濟에서 推定

4) 73 年과 76 年치 推定이 모두 Quarterly Economic Review of China, Hongkong, NORTH KOREA 誌의 1977 年度第 3 卷에 依한 것임.

이상과 같은 統計를 바탕으로 財政規模의 增加추세를 따져볼때 78年現在 收支合計가 고작해야 2千3百億元에서 2千5百億元정도 밖에는 더 커지지 않았을 것으로 미루어진다. 中國의 財政이 原則적으로 收支均衡을 前提로 하고 있기 때문에 昨今の 中共의 財政支出 크기는 내중 年間 1千2百億元정도로 보아 無難할 것이며 또 中共의 基本建設投資의 大部分이 國家財政支出에 의해 마련되고 있고 (59年度에 80%였지만 그後에도 各 地方이나 企業部門의 資金的 基盤이 向上되었을 可能性은 희박하므로 이 퍼센테이지는 現在에도 큰 變化가 없을 것임) 財政支出에서 占하는 基本建設投資의 比率이 50年代末期의 統計로 미루어 보아 약 50%이므로 설사 이 比率이 요즘 약간 높아졌다고 보더라도 最近의 中共의 基本建設投資規模는 7百億元에서 크게 웃돌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우기나 77年 10月부터는 職員과 勞務者에 대한 資金이 약 1割程度 인상되어서 月額으로 따져 7億餘元, 年間 84億元에서 90億이상이 이를위해 支出되고 있기 때문에 이 超過支出만큼 生産性이 上昇되지 않는 이상 그 額數에 해당하는만큼의 上納利潤이 減少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中共의 財政收入이 그 90%이상을 上納利潤에 依存하고 있음을 상기할때, 그리고 근년들어 부정高개를 쳐든 인플레이션 壓力때문에 物価安定쪽으로 돌려지는 돈과⁵⁾ 軍事費의 增大로 말미암아 昨今の 基本建設投資가 갑자기 증가되었

註; 5) Current Scene, 1978年 4・5月號 参照

을 可能性은 거의 희박한 것이라 봐야. 옳을것 같다.

이와같이 태부족인 財政投資형편인데다가 平均給與 60元정도밖에 되지않는 賃金으로써도 아무리 金利를 올리고 貯蓄을 장려한다 해도 기대할 수 있는 저축의 絶對額은 뻔한 것이므로 国内調達에 의한 1兆元投資란 애초부터 不可能한 지경인 것이다. 그렇다고 外資保有量이 많은것도 아니어서 79年浬現在 고작 20億달러정도로 推定되는 터이고⁶⁾ 이정도의 돈으로는 近代化에 必要한 프란트類를 사오기란 어려운 것이라 하겠다.

外資導入과 對外交易

国内에서 資金이 조달되지 않는다면 남은 길은 海外로부터의 資金導入方法밖에는 없다. 그래서 中共은 外国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는다는 從來의 方針을 변경 效率的인 外資導入에 積極性을 띠우게 되었으며 國際資本市場으로부터의 長期차관도입을 위하여 相互計定の 設置등 外部가 바라는 차관조건에도 잘 부응하려는 態勢를 갖추게 되었다.

實用主義路線이 採擇되기 前까지의 交易과 外資導入問題에 대한 中共의 方針은 ① 貿易을 絶對必要한 것외는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보고 ② 따라서 每年 完全한 貿易收支均衡을 취하는 保守的

註6) 前田耕一 (日本 時事通信第1編輯局次長)「世界週報」1979年6月19日号 經濟近代化計劃은 왜 調整되는가 參照

政策으로 一貫하였으며 ③ 外国(銀行 또는 政府)으로부터의 長期借款과 外国資本과의 조인트·벤처어를 實質적으로 기피하는 線에서 고정되어 있었다.?)

中共이 이같은 從來의 方針을 바꾸어 外資借款問題에 유연성을 갖게 된 後에도 그러나 이 問題가 그렇게 順調롭게만 진행되어온 것은 아니다. 中共자체의 無經驗과 知識不足 그리고 中共市場을 넘보는 外国資本간의 치열한 競争등으로 적지않은 雜音を 빚다가 79년봄경부터 겨우 제 軌道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남의 돈을 빌려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 작업이며 그 빚진 돈을 返濟해 가는 것이 얼마나 벅찬 일인가 하는것을 中共은 요즘에 와서야 겨우 깨달은것 같으며 그 結果 外資에 의존해야 하는 現代化計劃의 規模를 얼마만큼 축소 修正해갈듯한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外資를 쓰게 되면 그돈은 차관조건에 따라 返濟해 나가야 한다. 이를 返濟하기 위해서는 對外交易量을 可能한 限 확대시켜 나가지 않을 수가 없다.

1978年 12月 4日字 人民日報社說 「對外貿易은 크게 發展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題下의 글을 보더라도 對外交易에 눈을 뜬 中共이 이 問題에 얼마나 總力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수가 있다. 이 社說은 「네가지 現代化의 걸음을 재촉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註; 7) Asian Survey, Vol,xlx, No.5. may 1979. P.413 參照

對外貿易은 크게 發展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序頭아래 「對外貿易에 있어서는 統一的으로 政策・計劃을 세워 統一的으로 外國에 對한다는 前提밑에 管理体制를 對外貿易擴大發展의 필요에 적합하도록 改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結論짓고 있다.⁸⁾

이같은 中共政府의 努力에도 不拘하고 中共의 對外交易量은 아직 미미한 狀態를 벗어나지 못하고 78年末現在 總輸出量이 世界輸出貿易總額의 0.6%를 차지하고 있는데 不過하다.⁹⁾

앞으로의 對外交易量에 대해서 公式的으로 發表된 計劃은 없으나 78年2월에 체결된 日本과의 協定에 의해 78년부터 85년까지 8개년동안 2百億달러의 交易을 하기로 되어있다. 이 交易量은 興件의 進전에 따라 얼마간 增加될 것으로 보이며 此外에도 특히 美國과의 교역量이 大幅 늘어날것으로 展望이 되지만 이 정도의 交易量을 가지고서는 現代化에 動員되는 外債를 감당하기에 어려운 形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¹⁰⁾

4개의 現代化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西方先進國의 技術과 資本을 들여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對外交易量을 과감히 늘리지

註；8) 日本霞山會發行・中國月報第242號，1978年12月號 140頁參照

9) 同上 140頁參照

10) 中共의 74년도 및 75년도 交易量總額은 각기 1百39億745百萬달러와 1百40億9千億달러로서 이중 對非共產圈交易이 약 83%를 점하고 있다. 특히 先進産業國과의 交易量은 이 한해만해도 3.5%가 늘어 全体增加率0.8%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Current Scene Vol.XIV, No.9 P.3.參照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재 中共이 처해있는 처지이거나 現實的으로 이를 實踐에 옮기려면 중전의 「自力更生」의 原則을 大幅的으로 修正할 필요가 있게 된다. 다시말해서 前과 같이 輸入의 量을 輸出能力에만 맞추고 있다가는 現代化推進 計劃을 豫定보다 늦출수 밖에 없게될것이므로 貿易赤字가 늘더라도 可能한限 交易量을 增大시키는 政策을 採擇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中共은 이러한 政策轉換을 함에 있어 되도록 그들의 負擔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빠른 시일내에 貿易赤字를 메꾸는 方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첫째가 조인트·벤처의 형식을 취하게 되는 플란트의 수입을 積極推進하는 方案이다. 大規模 플란트의 수입은 技術과 資本을 동시에 導入할 수 있다는 利點을 지니고 있으며 또 大体로 플란트를 도입하는 분야가 高度의 技術을 要하는 精密機械·電子·原子力·動力등 部門이라는 점에서 中共이 특히 落後되어 있는 分野의 技術을 단시일내에 習得할 수 있는 淸경마저 마련해 주는 利點도 함께 지녔다.

둘째의 方案은 廣대한 中國大陸에 埋藏되어 있는 莫大한 天然資源을 우선적으로 개발해서 이를 적자메우기에 돌리자는 것이다. 中共이 世界有數의 資源保有國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인정하는 터이며 中共의 産業이 어느水準에 이르기까지는 이 天然資源을 수출해서 外資를 벌어드리는 것이 가장 손쉬운 길이라는 것도 남득할만한 일이라고 하겠다. 이미 中共이 原油를 外貨獲得의 主要資源으

로 삼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일이며 85년까지 10개의 大慶油田規模의 油田을 개발할 것과 티타늄·바나듐, 알루미늄, 코발트生産에 있어 世界大生産國을 目標로 삼고 있다는 것도 모두 中共이 현재 指向하고 있는 交易增大策의 一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¹¹⁾

서두는 科學技術導入

投資 資本의 도입과 더불어 中共이 現代化計劃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시급하게 要求되는 것이 先進國의 科學技術의 導入이다.

78年3월에 열렸던 全國科學會議에서 方毅(政治局員, 國家科學技術委員會 主任)가 지적하였듯이 현재 中共의 科學技術의 水準은 先進國에 비하여 15年 내지 20年以上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85년에 끝나는 科學技術向上第1次計劃 目標은 이러한 先進國과의 격차를 85년까지 10年 정도로 줄이자는 것이다.

中共이 추진하고 있는 4個의 現代化속에는 물론 이 科學技術의 現代化도 包含되어 있지만 이것은 바로 全體的인 現代化計劃의 기반이 되는 經濟力 조성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또다른 의미를 가진다. 科學技術의 現代化는 다른 現代化推進 目標인 農業과 工業의

註: 11) 柳世熙, 「中共의 實用主義路線과 이것이 北韓體制에 影響」
22頁~26頁 參照

生産性を 向上시키므로써 投資의 效率性を 판이하게 提高할 수 있
기 때문에 資本의 뒷받침과 더불어 經濟力 조성의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国外的 先進的 經驗을 學習・利用하자」는 題下の 78年 11月 3
日字 人民日報社說도 지적하고 있는바와 같이 지금 中共은 「外国
으로부터 先進的技術과 先進的設備를 導入해서 우리의 經濟力을 强
大하게 만들어 프로레타리아獨裁의 物質的基礎증강에 이바지 시키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前提아래 「社會主義制度의 優越性和 發達된
資本主義國의 先進的科學技術, 科學的管理經驗과를 결부시키고 外國의
經驗중에서 有用한 모든것과 우리들 자신의 具體的 狀況과를 결부
시키는 것에 익숙해진다면 農業・工業・國防・科學技術의 現代化를
勝利裡에 實現시킬수가 있다」고 믿고 있는터다.¹²⁾

前述한 科學會議에 參席한 鄧小平도 「自力更生은 外國것에 대
하여 맹목적으로 反對하는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科學과 技術은
人類가 共通으로 創造한 一種의 富이므로 한나라는 다른 나라의
強點을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強調하고 있는데¹³⁾ 西方先進
國과의 科學技術의 交流를 積極推進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中共의
意思表示는 政策面에서도 구체화되고 있는 중이다. 對內的으로는
①科學技術擔當機關의 新設 ②各種科學技術者會議를 통한 캠페인

註；12) 日本霞山會發行 「中国月報」 第241號, 1978年 11月號,

138, 139頁 參照

13) 「人民日報」 1978年 3月 22日字 參照

③科學技術研究機關의 擴大 ④科學技術專門家에 對한 優待 ⑤科學技術專門誌의 發刊등을 서 두르므로서 導入態勢를 갖추는 한편 對外的인 先進科學技術의 도입 방법으로는 ①中國系 外國科學者들의 招請 ② 外國의 科學技術團招請 ③ 各國과 科學技術協定締結 ④科學觀察團의 海外派遣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¹⁴⁾

이상과 같은 科學技術導入을 위한 일련의 움직임이 얼마만한 成果를 나타내느냐에 따라 現代化를 위한 資金投資의 效率性이 결정되고 그것이 마련하는 經濟的 基礎의 強度가 달라져 종국적으로 現代化과정의 Tempo가 左右된다고 봐야 옳을것 같다. 그러나 科學技術의 도입은 하루아침에 죽먹듯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더우기나 4人幫時代의 惡影響으로 高級技術者의 養成이 정제되어 技術者不足現象이 두드러진 데다가 高級技術 習得을 위한 外國留學能力 所持者의 數마저 극히 限定되어 있어 빠른 時日內의 科學技術習得에는 많은 隘路點을 지니고 있는 狀況인 것이다.

방대한 勞動力

中共이 가장 믿을 수 있는 經濟的 基礎에는 天然資源과 함께 방대한 量의 勞動力이 있다. 9億이라고도 하고 10億이라고도 하는 방대한 人口는 可히 두진장이라고 할 수 있는 勞動力의 供給을

註：14) 前出，柳世熙 「中共의...」 23頁～27頁 參照

可能케 한다.¹⁵⁾

非農業部門에 종사하는賃金勞働者(이른바職員과勞働者를 합친職工)의公式數字는 50年代末까지밖에 나온것이 없다. 그에 의하면 58年の職員・勞働者數가 4千5百32萬名, 59년이 4千4百16萬명으로 되어 있다. 60년대로 들어서면서부터 이職工數는 經濟統計와 마찬가지로 전혀公表된것이 없으나公式數字에準하는 것으로서新華社通信등이 보도한 각종比率이나其他資料를 종합한 결과職工總數가 約 342百86萬名으로推定되고 있다.¹⁶⁾

그러니까中共의賃金勞働者는 50년대 말까지 4千만에서 5千만을 오르내리다가大躍進期와文化革命期인 60년대에 와서는 오히려 1千餘만명이나 줄어드는 침체상을 보였는데 이러한 침체상은工業生産의推移面에서도 여실히 나타나 있다. 即大躍進期인 60년에서 61년의工業生産指數가 1957년을 1백으로 잡았을때 184에서 108로 떨어졌고文革期인 66년에서 69년의 3년동안 231에서 265로 완만한 성장을 기록하였을 뿐이다.¹⁷⁾

註; 15) 中国의 人口는 59年9月 中共國家統計局이 建國 10周年을 記念해서 조사한 57年末現在의 統計가 公表된 마지막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人口數는 推計에 依할수밖에 없는데 57年の 人口數 6億4千6百53萬을 年自然增加率을 2%로 볼때 79年현재 9億8千만이 되고 增加率을 적게잡아 1.5%로 볼때 8億9百7百만정도가 된다... 日本經營出版會 1972年刊「中国經濟圖說」70頁 參照

16) 「中国政治經濟總覽」1968年版 前田寿夫論文 參照

17) 漢陽大中国問題研究所刊 「中国問題」 2卷2號 金寿鎮 「中共의 經濟發展過程과 理念」 29頁參照 이資料는 美上下院 合同經濟委報告에 依한것임.

그러나 70년대로 접어들면서 職工數는 급속도로 늘어나 77年
末現在의 總數는 賃金總額推定 8百40億元 내지 9百24億元을 基
數로 잡고 1人當 平均賃金を 年額7百20元(月平均60元 基準)으
로 해서 산출되는 勞働者總數가 1億1千6百萬 내지 1億2千萬명
가량이 되지 않을까 推定된다. 18)

1億2천만명이라는 77年末 現在의 職工總數推定은 64年당시에
비하여 무려 3.6倍에 達하는 것인데 이는 文革期에 이른바 下放
되었든 약 6千萬명의 靑年들이 일부 都市로 복귀하거나 地方의
中小企業에 흡수되었을 것을 前提로 하더라도 비약적인 증가라고
하지 않을수가 없다. 그러나 한가지 재미있는 현상은 이 3.6이
하는 倍率이 工業 總生産額의 增加率과 거의 맞먹고 있다는 사실
이다. 75년 1월에 있는 周恩來의 政府活動報告에 따르면 74년
의 對64年比 工業生産額의 倍率이 2.9倍이고 (年平均 伸長率
11.2%) 77年 10月 23日字 餘秋里演說에 의한 75년도의 前年比
伸長率이 15.1%로 되어있으니까 75년도의 工業總生産額은 64年
의 약 3.3倍, 76年과 77年の 伸長率을 역시 15%전후로 잡을
경우 77年度の 工業生産額을 64年の 약 4.4倍가 된다. 다시말
해서 勞動力의 增加倍率과 工業生産額의 增加倍率이 거의 같다는
것은 64年이래 中共의 勞動生産性에 별다른 向上이 없었다는 結

註; 18) 前出 世界週報 1977年 12月 6日字 65頁 前田寿夫
“賃金引上과 中國經濟” 參照

論이 나오는 것이다.¹⁹⁾

얕은 生産性

中共의 工業生産性이 얕은것은 그 構造的인 側面에서도 立證할 수가 있다. 中共은 剩餘勞動力의 活用을 위하여 勞動集約型小規模 工場의 地方別로 建設하고 地方의 自立經濟圈形成을 추진해 오고 있는터인데 그 結果 75年 現在 消費財生産量中 中小企業이 擔當하고 있는 比率이 77.3 %나 되며 기타 질소肥料・시멘트・粗鋼・石炭分野에 있어서도 地方工業이 차지하는 比率이 74年 現在 각각 50 %・52 %・13 %・30 %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²⁰⁾

地方中小工業의 대부분이 前近代的인 技術과 方法에 의하여 低質의 製品을 만들어 내고 同時에 그 生産性이 극히 낮다는 것은 中共當國도 認定하고 있는터이다.

生産性이 얕으다는 점에 있어서는 農業部門에 있어서도 다를것이 없다. 中共의 農業生産은 1953年~74年 사이에 年平均 2.4 %

註；19) 漢陽大, "中國問題", 1卷2號 金應烈 「中共經濟의 發展過程과 그 展望」 10頁 參照

20) 美上下院合用經濟委員會發表 前出 金壽鎮 「中共의 經濟發展過程과 理念」 26頁 參照

의 成長率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土國進期인 60년과 61년에는 指數上으로 보아 57年の 生産高를 100으로 잡았을때 각기 78과 77로 떨어졌고 文革期인 66年에서 69年까지 3年사이엔 114에서 118로 겨우 3.5%가 오른데 불과하다. 中共의 人口增加率을 2%로 본다면 지난 20년간동안 中共의 農業成長은 겨우 人口增加와 맞먹는 狀態에 머물러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²¹⁾

그래서 지금 中共은 農村의 4化運動(化學化, 機械化, 電機化, 시멘트化)을 積極 展開하는 한편 75년 1월에 公布된 新憲法에 의해 農村에 있어서의 自由地와 家庭副業 經營을 許容 農業生産性의 向上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다.²²⁾

生産性向上을 위한 이같은 物質的 誘因(Material Incentive) 방법은 工業生産部門에도 部分的으로 적용되고 있다. 1977年 8月 26日字 人民日報社設은 「社會主義社會에서도 利潤概念이 있으며 利潤을 企業經營의 가장 重要な 尺度로 간주」하고 있

註; 21) 前出 金壽鎮 28, 29頁 參照

22) 中國問題研究院 「共產中國의 現況」 1976, 242~243頁 參照

거니와 實際로 杭州 등지의 絹織物工場에서는 勞働者에게 報償金制度를 採用해서 月給의 5 ~ 10 %範圍內的 상여금을 지불하고 있다는 보고도 傳해지고 있다.²³⁾

이 같은 制度는 資本主義經濟에 있어서의 競爭原理과 利潤追求를 그나름대로 採擇한 것으로 현재 常識化되어 있는 社會主義經濟體制 아래서의 非能率性과 低生産性を 타개하기 위한 한 方便으로 도입해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무튼 中共의 農業分野는 4개의 現代化的 우두머리에 農業을 올려놓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그 機械化진전이 매우 遲遲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것도 따지고보면 資本의 不足, 設備과 技術의 不足 등으로 因한 農業機械의 生産 및 供給不振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農業部門의 담보상태는 工業의 近代化를 위해서도 좋지 못한 影響을 끼치고 있는것이 分明하다. 農民 1人當生産性的의 저조는 農村에서 工場으로 流動될 수 있는 勞動力의 供給에 차질을 초래하고 이것이 近代化計劃의 全体的인 움직임에 까지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註 ; 23) 前出 世界週報 79年 6月 19日字 38頁 參照

現代化의 展望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주어진 條件下에서도 中共의 經濟는 과거 30년동안 徐徐히 그러나 確實히 成長되어 온것만은 사실이다. 특히 工業部門에 있어서는 지난 53년부터 74년까지 年 10.5%의 높은 成長率을 기록했고 GNP도 年平均 5.6%씩 伸長되어 왔다. 그러나 이정도의 成長率을 가지고서는 中共의 現代化가 가까운 將來에 所期한 目標만큼 이룩될 可能性은 그리 크지 않다고 봐야 옳을것 같다. 비단 經濟的인 側面에서 뿐만아니라 經濟政策의 方向을 크게 左右할 수 있는 政治的인 安定性여부 특히 鄧小平이 주도하고 있는 實用主義路線의 定着여부에 따라서도 中共 現代化의 未來像은 時間面에서나 內容面에서 현저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中共이 지니고 있는 廣大한 땅, 방대한 人口, 豊富한 資源을 기본적인 經濟的 힘으로 계산할때 時間的인 얼마간의 지연은 있을지언정 머지않은 將來에 先進國을 「따라잡고 뛰어 넘겠다」는 그들의 口號대로 現代化가 이룩되리라는 사실에 의심을 둘餘地는 없어진다. 그만큼 中共이 가진 經濟的底力은 큰것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이다.

더우기 外國으로부터의 先進된 科學技術의 導入이 그다지 큰
隘路點을 갖고 있지않다고 前提할때 中共의 現代化는 80年代末이
나 90年代初에 現在의 先進國水準에 도달하고 그 以後 加速度를
붙여 先進國을 따라 잡을수 있는 基盤을 갖추어 나가리라고 보아
큰 망발은 되지않을줄로 안다.

現代化의 基準을 어디에다 두느냐하는 것도 問題려니와 어느
정도의 水準의 現代化를 언제까지 實現시킬 수 있느냐 하는 期限
上의 豫測은 지금 여기에서 설블리 할수 있는 性質의 것이 되지
못하다는것을 말해두고 싶다.

Ⅲ. 現代化推進과 國際協力

10億人口의 中國에는 變革의 바람이 끊임없이 불고 있다.

49年10月 中共政府가 수립된 이래 수많은 大小變動이 꼬리를 붙고 일어났으며 昨年부터는 「새로운 長征」으로 불리는 「4大 現代化」運動이 한창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變化의 連續은 거대한 中國大陸의 뿌리깊은 傳統社會를 革命的수단으로 주술하여 莫強한 社會主義國家를 再建하는데에 따른 필연적인 現象이겠다. 실상 北京의 한 政治學者는 中共의 不斷한 革命을 論하면서 그 제1段階는 外勢로 인한 民族的 羞侮의 除去와 國家統一을 위한 強力하고 効率的인 中央集權的 共產體制의 구축이었으며 근년에 시작된 第2段階는 今世紀末까지 社會主義強國을 建設하기 위한 國家現代化라고 지적했다. 24)

그런데 지난 30年間の 中共變革過程을 살펴보면 對內外政策의 極적인 變化나 政變이 一定한 週期性을 띄고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內政의 경우는 대체로 4~5年의 간격을 두어 왔다. 建國初期의 정리기간을 거친 다음 53년부터 제1차5개년經濟計劃이 推進됐고 그 成果에 힘입어 58년에 「大躍進」이 전개됐으나 이내

註24) Golam, W. Choudhury "New International Patterns in Asia", Problems of Communism (Washington), March April 1979, PP. 15

失敗作으로 판명됐다. 그사이 毛沢東대신 國家主席이 된 劉少奇는 經濟主義를 推進, 61년부터 農業중점의 經濟調整을 실시했으나 66년에 터진 프로레타리아文化革命의 過中에서 修正主義者로 몰려 축출되고 말았다. 71년에 林彪의 구데타陰謀事件이 발각되고 76년에는 中共의 兩巨頭이던 毛와 周恩來의 死亡으로 繼承問題를 에워싼 「4人幫」사건이 일어났다. 결국 華國鋒이 4人幫을 물리치고 黨主席이및 首相職에 올랐으며 78년에 意慾的인 4대 現代化運動을 일으켰다.

對外政策의 變遷 또한 두드러진다. 中共은 政府수립以後부터 50年代에 걸쳐 蘇聯主導下의 「社會主義陣營」에 가담, 反美鬭爭을 벌였으나 60年代에 접어들어 蘇聯과의 理念 및 國境분쟁이 일어나면서 美, 蘇 兩強大國을 함께 敵對視하는 한편 세 3世界의 指導의 위치를확보에도 主力했다. 對蘇關係가 격화하자 中共은 70년대초에 美國과 和解를 이룩하고 소련을「公敵1號」로 規程했으며 근년에 이르러서는 現代化를 위해 西方진영과의 유대강화를 서두르고 있다.

概括的으로나마 中共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간취되는 것은 國內추세는 豫測不許의 劇的요소를 적지 않게 지니고 있고 外交政策의 경우 원칙은 一貫性을 두되 政策展開는 國세정세의 變化에 적응하며 상당한 유연성을 발휘한다는 點이다. 또 다른 測面에서 볼때 國內變動의 사태발전과 對外政策 展開간의 聯關性은 부분적인 예들 제외하고는 별로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華国鋒-鄧小平体制가 추진하고 있는 4대 現代化 運動과 이를 직접적으로 반영한 對西方近接外交의 관계는 異例的이며, 흔히 거론되는 「外交는 国内정치의 延長」이라는 경우에 부합된다.

華가 4대 現代化運動을 정식으로 발족시킨 것은 78年2月이다. 全國人民代表大會 第5期第1회 회의의 政府活動(國政)보고에서 「中國人民의 全般的任務」의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今世紀내에 中共을 農業, 工業, 國防, 科學技術이 現代化한 社會主義強國으로의 建設」을 제시했고 이 規程은 같은 회의에서 改正 채택된 新憲法의 前文에 挿入됐다. 25)

그는 4대 現代化의 「決定的意義」는 「社會主義經濟를 高速度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하면서 2000년까지 計劃을 全面的으로 實現, 生産의 諸分野에서 最先進資本主義國의 水準에 接近, 「일부는 쫓고 일부는 能加」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렇게 意慾적인 近代化 作業을 推進하는데는 先進技術 및 外資의 도입이 필요불가결한 分野에 따라서는 先導的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런 要件을 충족시키기 위해 實用主義노선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 華-鄧聯立체제는 과감한 조치를 段階的으로 취했다. 北京政府는 4개 現代化 計劃을 發表한 직후부터 對牽制戰略의 전개도 겸한 外交活動을 적극적으로

註 25) (世界年鑑 1979), 共同通信社(東京), P.37

벌여 美国, 日本, 西欧와의 제휴를 다졌으며, 베트남과의 国境分争이 있긴 했으나 魯隣外交도 착실히 했다.

華는 특히 79年 6월에 열린 第5期 全人代第2회회의의 國政보고에서 플랜트輸入을 包含한 先進技術과 外資導入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이어 「中外合資經營企業法」(外資導入法)이 공포됐다. 對外的 조치와 아울러 주목되는 것은 北京政府가 近20年만에 처음으로 全人代회의에서 各種國家經濟통계를 공표했고 또 法體系 및 制度整備等 內政改革을 통해 中共社會의 閉鎖性을 點進的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며 이는 外資유치에도 間接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26)

華-鄧體制가 全力投球을 하고 있는 4대現代化는 그 目的이 中共을 先進強國隊列에서 끼게 하는 것인만큼 國際政治面에서 意義가 클뿐더러 計劃自体가 방대한 國際的 제휴와 협조를 必要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推進過程에서 國際社會에 끼치는 영향도 상당하다. 이렇게 의욕적이고 의미심장한 4대現代化를 위해 中共이 近來에 취한 開放政策의 안팎과 國際協助의 유치進歩를 부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開放策의 안팎

中共外交政策의 궁극적인 目的은 「世界共產主義를 目標로 하는 마르크스·레닌主義와 毛沢東思想에 의해서 形成되고 革命을 推進하

註 26) 「朝日新聞」(東京) 79.6.19 및 7.3

는것」이라고 整理할 수 있다. 이러한 定義는 78年 3月에 공포된 新憲法第1章總則 第2條에 中共의 國家指導思想은 「마르크스.레닌主義.毛沢東思想」이라고 規定되어 있을 뿐더러 現指導層이 毛格下 運動을 默認하고 思想을 盲目的으로 추종하지는 않더라도 毛의 生前에 형성된 基本路線과 戰略에서 크게 이탈할 수 없는 現狀에 근거를 둔 것이다. 27)

실상 華国鋒은 4대現代化를 추진하면서 鄧小平의 實用路線을 따르고 있지만 그 자신의 中立的인 性分이나 毛의 繼承指名을 받았던 사실과 아직도 4人幫의 急進主義 및 極右路線의 追從者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毛路線에 대해서 지극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 76年 12月에 毛의 56年末發表作「十大關係論」(中共内外의 当面重要問題 處理方法論)을 公表함으로써 자신의 反對勢力을 說得하는데 毛를 이용한바 있는 劉는 최근의 全人代제 2차 회의에서는 先進技術과 外資導入이 自力更生의 原則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렇더라도 華政權이 4대現代化의 推進을 계기로 「紅」(思想)을 「專」(技術)보다 重視했고 階級鬭爭과 自力更生에 力點을 두었던 毛路線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며 華가

國政보고에서 「偉大한 歷史的 轉換」이란 말을 쓴 것은 意味

註 27) K.W.Radtke, "Is There A New Communist Chinese Foreign Policy?", Issues & Studies (Taipei: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XV-1, January 1978, PP44-47.

深長하다.

自力更生의 變容

78年2月の 全人代第1次 會議에서 4대現代화와 外國技術, 借款導入 方針이 決定되는 「國民經濟發展10個年計劃」의 윤곽이 補完 발표된 다음 78年12월에 열린 中國共產黨第11回 中央委員會 第3回總會에서는 黨活動의 重點을 「社會主義現代化建設」 즉 經濟建設로 옮길 것을 결정했다. 黨의 重點을 經濟建設에 옮긴다는 것은 毛의 生存時에 最重要時되던 階級鬭爭이 뒤로 밀려났음을 뜻한다.

또 76年12月 華는 「農業은 大寨에서 學習」 77년4월에는 「工業은 大慶에서 學習」한다는 全國회의를 열기까지 했었는데 畝중에서 농지개발의 표본인 「大寨方法」이 점차 바뀌고 있다. 「自力更生, 刻苦奮鬥」를 외치며 농민의 집단노동으로 農地基盤投資, 農地建設을 하는 것으로 70年代 들어 급속히 擴大됐던 大寨方法은 勞動生産性으로 보아 合理的投資方式이 아니라는 問題點이 제기된 것이다. 28)

毛의 「遺物」中에서 4대現代化 특히 外資導入과 가장 어긋나는 것은 「自力更生」이다. 일찍이 毛가 自力更生을 主唱했던 근거로 다음 4가지를 들 수 있다. 즉 ①自治自足하려는 大陸大國들의 경향 ②19世紀와 20世紀前半에 걸쳐던 中國의 辱辰的對外關係(2)

註28) 「朝日新聞」 79.7.10

次대전 후에는 對蘇 관계) ③遊學隊시절에 얻은 習性 ④뿌리 깊은 中華思想과 排外思想等이다. 실제로 自力更生이 遵守되던때의 結果도 4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①對外무역은 副次的인 經濟行爲로 緊要한 경우에만 행해졌고 ②총체적인 輸出入均衡을 유지하기 위해 交易量은 潛在量이하로 제한됐으며 ③開發借款을 包含한 長期對外負債를 극도로 회피하고 더구나 合作投資는 禁忌이었고 ④外國과의 科學技術者交流의 規模도 적었다. 29)

이러한 閉鎖상태가 華-鄧聯合의 손으로 開放되었다. 이미 76~78年間に 계약된 完成設備플랜트輸入高만도 31億달러가 넘고, 78年度 對外무역의 入超額數字는 35億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公表됐으며 外資導入法까지 制定公布됐다. (다음章參照)

現執權者들이 「洋為中開」(西洋것으로 中國에 이용한다)을 위해 自力更生을 탄력성있게 운용하고 있을뿐이라고 강조해 反對派들에게는 납득이 잘 안된다. 그래서 復活된 것이 毛가 한때 提唱한바 있던 「實事求是」(實際에 임하여 眞實을 求한다)이다. 華體制는 이것을 新憲法第16條에 搜入, 國家機關工作要員의 守則으로 삼고 있으나 기실 「紅」과 「專」중에서 어느 것이 실제로 더 眞實한가 是非를 가려보자는 각도로 적용하고 있다. 實事求是는 실상

註29) Jan S. Prybyla, "Changes in the Chinese Economy: An Interpretation Asian Survey(Berkeley) XIX-5 May 1979 PP413.

急進左派勢力이 주동이던 文化革命과 4人幫노선이 急進的인 이데올로기中心이었던 것의 안티테제이기도 하다. 30)

3 世界論

中共外交政策의 基調는 「3 世界論」이다. 60年代初에 대두했던 「中間地帶論」이 國際政勢의 變化에 따라 발전·再定立된 것이며 3 世界論을 처음으로 体系있게 전개한 것은 74年4月 第6回 유엔 特別總會에서 행한 鄧小平副首相의 연설이다. 「毛沢東이 주장하던 「天下大動亂」을 바탕으로 해 짜여진 이 理論에 따르면 「第1 世界」는 帝國主義(美國)와 社会帝國主義(蘇聯)의 兩超大国이며 그들은 각기 發展途上國들의 支配, 搾取를 탐내고 서로 一時的인 秘密活動은 하더라도 결국 世界制覇를 놓고 競合하기 때문에 世界를 戰爭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 「第3 世界」는 中共스스로가 包含된 아시아, 아프리카, 中南美 및 彼植民地 諸國이며 活動的勞動力으로서 植民主義·帝國主義 특히 超大国에 반대하는 主力體이고, 「第2 世界」는 第1과 第3의 사이에 있는 先進工業國家들 즉 유럽, 日本, 大洋州·카나다등으로 구성됐으며 그중 일부 國家가 第3 世界와 植民主義 關係를 갖고 있긴 하나 전체적으로는 超大國의 支配·危脅을 슬슬 받고 있음으로 超大國의 隸屬化에서 벗어나려는 慾求에 차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第3 世界는 굳게 團

註 30) 「世界年鑑」, P.37 및 150.

結하고 第2世界와 便法上 協助하여 第1世界를 孤立化하고 '反對鬭爭을 전개하자는 것이 3世界論의 취지이다. 31)

鄧은 이理論을 가리켜「國際政勢의 모든 문제로 처리하는 戰略的 戰術的 發生點」이 된다고 말했으며 華도 77年8月 黨2全大會의 政治報告에서「이理論은 프로레타리아階級の 國際鬭爭에 있어서 階級路線이 되며……앞으로 더욱 強大한 威力를 발휘할 것이다」라고 斷言했다. 32) 3世界論은 드디어 78年 改正憲法의 前文에 비교적 소상히 다음과 같이 明記되어 中共外交의 基本路線으로 確認됐다.

그런데 이理論이 實際適用에 있어서는 상당한 修正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선 明文上으로 革政 成立후에 超大国 「美.蘇」의 순서가 「蘇.美」로 바뀌어 蘇聯을 最大の 敵으로 명확히 했다. 그보다도 實質的인 모순이 제기되는 것은 反蘇戰略 및 4대現代化 推進을 위해 第1世界의 美国과 修交를 서둘러야 했고 나아가 美日.中間 準同盟關係수립까지 稜策하는 中共의 現實外交 때문이다. 33) 蘇聯을 繼續 「가장 위험한 戰爭震原地」로 規定하더라도 4대現代化를 위해서는 미국뿐만아니라 「第2世界」와도 폭넓은 協助交流가

註 31) 霞山会, 「中国總覽」, 東京, 1977.P197

32) 上掲書

33) Joyce K.Kallgren, "China 1978:The New Long March", Asian Survey, January 1979.PP.3.

있어야 하는만큼 3世界論의 기반이 돼 있는 「天下大動亂」을 緩
化해야 할 必要性이 생긴다. 또 多樣화된 오늘날의 國際政治体制에
서는 「第3世界」에 속하는 여러 나라의 不調和와 各國의 國益이
相反되는 경우가 많아서 第3世界の 指導國을 自處하는 中共이 意圖
圖하는 方向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으며 이런 現實은 中共이 표방
하는 「反霸權主義」의 適用도 어렵게 하고 있다. 中共의 궁극적
인 목표가 世界革命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3世界論을 繼續 그대로
밀고 나가기에는 理論的인 모순과 現實的차질이 적지 않을 것 같
다.

國際協助의 進陟

1. 78年初 4대 現代化가 확정된 직후부터 中共外交는 한결 활발
해졌다. 외교방향 또한 뚜렷 하여 蘇聯霸權主義에 대한 「聯合戰線」구축
과 4개 現代化推進을 위한 國際環境造成 및 國際協助유치라는 当面
目標에 集中했다.

對外關係의 明暗

華國鋒自身이 訪門外交에 나서 78年5月 北韓을 들른지 몇
달 후 中共主席으로는 처음으로 東歐圈을 찾아 獨立路綫을 걷고 있
는 루마니아와 유고슬라비아를 방문했다. 8月東歐여행 직전에는
「反霸權條項」으로 끌어오던 日本과의 平和友好條約이 타결 調印됐
으며 이어 불과 半年前에 체결됐던 日・中長期貿易協定을 補強하여
85년까지 8年間의 交易關係를 輸出入總額 2백억 달러가

되게 確認했다. 台灣問題로 지연됐던 對美修交協商도
 急進展하여 79年1月1日을 期해 美. 中外交관계가 정식으로
 수립되었다. 79年7月에는 美. 中貿易協定이 조인되었는데 兩
 國間의 交易增大外에도 中共이 最惠國대우를 받아 폭넓은 미국의
 先進技術, 施設, 投資는 勿論 美輸出入銀行등을 통한 公共借款을 導入할 수 있게됐다.
 經濟關係를 중심으로한 西歐와의 交流도 불렀다. 谷牧. 方毅. 王
 震副首相등이 西歐各國을 巡訪, 그 결과로 欧州共同体 (EC)와는
 貿易協定을 맺었고 프랑스, 西獨, 英國, 이탈리아와는 經濟協力이나
 科學技術協力協定을 체결했다. 中共이 西歐各國에 바라는 것은 先
 進的 鉅工業施設 말고도 英國의 해리어戰艦機, 프랑스의 對戰車미사
 일 등의 武機 및 그 開發技術의 供給이다. 34)

이러한 對西方外交의 成果가 이루어지는 동안 鄧小平. 李先念副首
 相, 黃華外相을 비롯한 수많은 北京指導層은 東南아시아, 南아시아,
 中東 및 아프리카 各國을 訪門, 善隣 및 反霸權外交를 다졌다.
 이중 對東南아시아外交는 蘇聯 및 베트남의 「大-小霸權主義의 侵
 略과 擴張投為」에 對處하는 것이 主目的이나 華僑懷柔策도 겸한
 것이다. 中共은 文化革命시절 華僑 및 그들의 本土居主視威를 학
 대했었으나 4개現代化추진을 전후해서는 華僑策을 修正, 그들의 本
 土發展參與유치에 力點을 두고 있다. 華僑들의 財政的寄與도 적지

註 34) 「世界年鑑」 P.167

않지만 그들이 지닌 西方式 企業管理 및 經驗이 앞으로 확대될 中共의 外資合作企業育成에 공헌할 것으로 再評價되고 있다. 35)

對西方交流의 놀랄만한 팽창에 反比例해 蘇聯 및 베트남과의 관계는 급속도로 惡化했다. 78年初에 시작된 베트남의 「華僑排斥」을 계기로 5월에 中共이 對베트남斷援조치를 취하자 베트남은 다음달 蘇聯이 主導하는 東歐經濟協力體 (COMECON)에 加盟, 親蘇路線을 뚜렷이 했고 11월에는 蘇聯과 友好協力條約까지 체결했다. 中共의 對日條約조인과 對美修交가 베트남이 이러한 對蘇密着절차를 밟은 직후에 있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77年末에 시작된 베트남·캄보디아國境分爭이 겹쳐 一層 惡化된 中共·베트남 對立은 79年1月 베트남의 본격적인 侵略으로 親中共캄보디아政權이 崩壞하자 急轉直下, 中共은 다음달 베트남을 「應懲」侵攻했다. 이런 사이에 中·蘇間의 對立關係가 惡化한 것은 勿論이며 中共은 79年4月 내년으로 滿期가 되는 30年中·蘇友好相互援助協力條約을 폐기키로 했다. 華國鋒이 지난번 全人代제2차 會議에서 「大小霸權主義의 侵略行爲」를 규탄하면서 「社會帝國主義는 世界緊張의 主要한 根源」이라고 몰아 물인 것은 中共의 敵對感情이 얼마나 날카로운가를 말해준다. 36)

「社會帝國主義」와의 對決이 4대現代化의 한主要動機가 되었지만

註35) J.K.Kallgren, OP.Cit, PP.8.

36) 「朝日新聞」 79.6.19.

計劃推進에 상당한 차질도 초래한다. 全人代제 2차 會議에서 豫算 규모를 公表한 張勁夫財政部長은 中共国防豫算의 윤곽에도 言及, 79年度 国防豫算은 總 2百2億3千萬元(1百26億4千萬달러)이며 이는 對베트남國境戰에 소요된 경비 때문에 78年度對比 21億달러가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37) 20%나 增額된 셈인데 前年度와 같은 1千1百20億元(약 7百億달러)에 머물러 있고 農業, 輕工業, 產工業에 걸친 79年度 基本建設投資總額이 前年比-1.3%밖에 늘지 않은 4百億元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뼈아픈노릇이었다. 華政府는 全人代제 2차 會議를 계기로 81년까지를 「國民經濟調整期間」으로 설정, 「調整. 整頓, 改革, 提高(向上)」를 부르짖으며 우선 79年度 基本建設投資總額중 農業에의 投資比率을 78年の 10.7%에서 14%(投資總額56億元)로, 輕工業은 5.4%에서 5.8%(23億元)로 각각 증가하는 대신 重工業에는 前年の 54.7%에서 46.8%(1百37億元)로 축소해야 했다. 이런 調整에는 經濟的要因밖에도 對베트남戰같은 非經濟的要因의 영향이 적지않게 작용했을 것이다. 38)

이런 사태는 先進國에 비해 軍備, 技術면에서 현저히 뒤져 있는 中共國防의 現代化에도 차질을 빚을 것 같다. 이미 北京指導層에서는 4대現代化에도國防이 차지해야 할 優先順位를 놓고 심각한 論爭이 벌어지고 있는 판에 國防産業과 관련이 깊은 重工業에 對한

註37) 「東亞日報」 79.6.30

38) 豫算總數는 「朝日新聞」 79.6.22 및 6.29.

投資率을 내린 것은 주목되는 일이다. 國家現代化論爭은 아직 최종적인 結論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非軍事部門의 目標달성을 성취하려면 軍의 全面的 現代化는 80年代 후반으로 연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³⁹⁾

10 個年計劃과 外資獲得

華國鋒은 4대現代化達成의 成敗는 76~85年間の 実績에 달렸다면 당초 75년에 作成됐던 「國民經濟發展10個年計劃」 要綱草案을 補充, 修正하여 78年2月の 全人代제1차會議에 제출했었다. 이 계획은 지나치게 야심적이어서 결국 1年남짓후인 79年6월에 열린 全人民제2차會議에서 일부 수정되었거나 그 목표는 거창하다. 85년까지의 목표를 몇가지만 추려 보면 食糧生産4億噸, 粗綱6천만噸을 비롯해 6大經濟體系地域건설과 大型鉄鋼基地10, 大型非金屬基地9, 大型石炭基地9, 大型油田 및 가스田10, 大型發電所30, 鉄道新幹條6, 港湾5개를 포함한 1百20개 基幹事業의 新規 또는 계속 工事等이다.⁴⁰⁾

所要投資額 또한 엄청나다. 78年9月 中共의 財政最高責任者인 李先念은, 85년까지의 豫算總額은 약1兆元(약6천億달러)이라고

註39) Nicholas R. Lardy, "Recent Chinese Economic Performance and Prospects for the Ten-Year Plan", in Chinese Economy Post-Mao (A compendium of Papers Submitted to Joint Economic Committee of U.S. Congress); 1978

밝혔으며 그중 2千億내지 2千5百億달러의 資本財輸入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計劃修正作業이 끝나 優先順位の 재조정으로 輸入부문이 축소되면 資本財輸入을 3百50億 내지 5百億달러 정도로 줄일 수 있겠으며 이額數는 中共이 감당할 수 있는 規模이다.⁴²⁾

中共은 이미 76-78年間に 29件, 31億3千萬달러에 달하는 完成設備플랜트(whole plant)輸入을 西方各國과 체결했다. (表1參照)

가장 큰 몫을 차지한 것은 日本의 鉄鋼부분으로 이는 대부분 당초 日本과의 제후로 착수했던 上海근교의 宝山鉄鋼基地建設用이다.⁴³⁾

中共政權의 当面과제는 現代化에 소요되는 內資동원과 함께 外資獲得이다. 外資充當의 방법은 貿易差益, 華僑送金등의 在來式外에 새로히 外國의 銀行借款이나 民間投資가 깊이 열렸고 이때까지 原則的으로 禁忌이던 政府間借款, 援助와 國際通貨基金(IMF)등 國際機構부터의 借款導入도 검토되고 있다.

中共의 貿易은 自力更生에 억눌렸다가 70年代에 들어서 急増, 78년에 처음으로 輸出이 1百달러線을 넘었으나 그 額數는 台灣이 2年앞서 달성했던 것이다. (表2參照) 中共貿易의 특징으로 輸

註40) 「世界年鑑」 P.39

41) 「朝日新聞」 79.6.19.

42) Lawrence B. Krause, "Foreign Trade and Trade Policy of China (unpublished seminar paper),

43) J.S. Prybyla, op. cit, P.421

表1 中共의 플랜트輸入契約 (1976 ~ 78 年間)

單位：美百萬弗

産業分野	國別	日 本	英 国	西 独	美 国	이탈리아	計	%
鐵 鋼		2,104 (3)			5 (1)		2,109	67.4
石油 및 石油化学 (플랜트 및 機材)		404 (9)		141 (3)			545	17.4
電 子		219 (6)					219	7.0
石 炭			133 (1)				133	4.2
其 他		15 (2)	68 (1)	34 (2)		8 (1)	125	4.0
計		2,722 (20)	201 (2)	175 (5)	5 (1)	8 (1)	3,131	100

% 87.6 6.4 5.6 0.2 0.3 100

괄호 안 數字는 契約件數를 가르침

Source : CIA, China Economic Indicators (Washington),
December 1978.

JETRO, Statistics of Japan-China Trade (Tokyo),
March 1979

出入均衡유지가 두드러졌었는데 78 年에는 施設材 도입으로 12 億여 달러의 入招를 기록했고 79 年の 豫想貿易 赤字폭은 35 억 달러에 이른다. 李先念의 앞서 発言에 따르면 78 年 9 月 現在 中共의 外貨保有高는 20 億 달러 이었으며 79-80 年에는 經濟建設이 절정에 달해 상당한 資金이 필요할 것이므로 貿易赤字는 적어도 수년간 계속할 전망이다.

이러한 貿易収支 상황은 華政權으로 하여금 外資導入 조치를 서두르게 한 주요 原因의 하나이겠다. 따라서 中共은 앞으로 外資유치를 위해 한층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하기에 방대한 中国交易을

表 2

中共貿易의 推移

單位：美百萬弗.

	總 額	輸 出	輸 入
1955	3,035 (25.9%)	1,375 (30.9%)	1,660 (21.2%)
1960	3,990 (34.3)	1,960 (31.9)	2,030 (36.7)
1965	3,880 (70.0)	2,035 (68.1)	1,845 (72.1)
1970	4,340 (80.2)	2,095 (77.1)	2,245 (83.1)
1975	14,575 (83.6)	7,180 (80.8)	7,395 (86.3)
1976	13,275 (82.3)	7,265 (82.9)	6,010 (81.6)
1977	15,055 (83.3)	7,955 (82.7)	7,100 (88.8)
1978	22,110 (n.a.)	10,430 (n.a.)	11,680 (n.a.)
1979	27,500	12,000	15,500

괄호안 數字는 對非共產國交易의 構成比를 가리킴.

Source: 1955-77--CIA, "China Economic Indicators" (Washington), December 1978.

1978-79--79年6月 中共第5期 第2回 全人代에서 公表된 貿易高(79年度는 計劃高)를 1弗에 1.6元의 換率로 換算한 것이며, 公表된 78年度總額의 對前年比 增加率은 30.3%임.

에워싸고 벌어지고 있는 西方各國間의 경쟁은 치열하며 더구나 지난번 全人代에서 採択된 開放조치가 예상을 뒤엎을 정도로 너그럽고 광범위하므로 경합은 가열할 것이다. 한예로 合作投資法의 경우 전문가들의 당초 예상은 外國業體의 投資上限係를 49%로 정할 것이라 했는데 公표된 法條項에는 上限線이 설정돼 있지 않다.

美國도 貿易協定을 체결했으므로 이때까지 對中共去來에서 앞장섰던 일본이나 西歐國家들과 본색적으로 겨누게 됐다.

그렇더라도 中共과 西方國家들측은 각각 적지 않은 制約을 받고 있으며 慎重을 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原因은 여러 가지 있겠으나 가장 큰 것은 中共의 國內事情이다. 제2차 회의에서 공개됐듯이 4대現代化계획이 너무나 의욕적이어서 실시된지 1年만에 修正이 불가피하게 만든 北京政府의 計劃能力이나, 막상 外資가 쏟아져 들어올 경우 中共이 이를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가가 의심스러운 制度的 受容態勢에서 早魃이라도 당하면 農業生産量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경제적 脆弱性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問題點이 제기된다. 그중에서도 華-鄧體制나 西方投資國측이 공통적으로 가장 염려하는 것은 政治的制約이다. 76年末에 執權한 華體制는 政治安定을 아직 누리고 있으나 中共에서는 미묘한 論難의 대상이 되는 「外勢介入」을 急進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으로 中共의 政治風土로 보아 反對派들의 逆轉可能性을 배제할 수 없다.

또 베트남과의 國境戰이 증명했듯이 국제정세의 變化가 4대現代化에 차질을 빚어낼 危險도 늘 도사리고 있다. 中共의 現代化作業이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는 中國人들뿐만 아니라 世界의 關心事이고, 특히 中國에 이웃한 경우는 政治·安保·外交·經濟·文化등 모든 면에서 직접·간접적인 영향을 받게됨으로 예의 지켜볼 일이다.

Ⅳ. 現代化의 推進勢力과 政治版圖

4人幫을 숙청한 정변을 전환점으로 하여 經濟主義에로 대선회한 중공은 개탕정책 밑에 미국, 일본 및 서방유럽 국가들과 協力關係를 맺으려 애쓰면서 4個 現代化(4化)의 길에 들어섰다.

그러나 毛沢東 이후의 世代를 구획하는 華國鋒-鄧小平 體制는 이론, 노선, 방침, 정책, 계획, 결의를 둘러싸고 그 내부에서 間斷없는 4化의 論爭을 벌인다.

논쟁은 「實踐이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표준」이라는 문제에 집중되었다.

현대와 추진세력은 실제 상황에서 탈락하여 理論과 實踐을 상호 결박하는 마르크스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일체의 사안을 정확히 처리한다는 「實學求是」의 이론을 제기하며 4化의 실천적 근거를 확립하려 했다.

「일체의 認識, 主觀世界의 사안은 실천과 경험의 검증을 必要로 한다」는 實踐派의 공세는 78년 말에 열린 중공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회의(11期 3中全會)에서 대대적인 승리를 거둔다. 그런데 3中全會의 결과에 힘입은 人權分子들의 강렬한 요구가 끊어 오르지 實踐派가 주도하는 中共中央을 부득이 마르크스-레닌주의 및 毛沢東 사상을 중심으로 한 4項 基本原則의 준수를 선포하여 社會主義民主에 계몽을 전모로서 수세에 몰려있던 이론파 凡是派에게 반격의 기회를 주게 된다.

일체의 것을 마르크스-레닌주의 및 毛沢東 사상의 개별어구에
집착한 다해서 이름 붙여진 凡是派(Whateverism)는 實踐派에 내립
하는 정통적 毛派의 대명사다.

78년 5월에 본격화한 실천표준문제에 토론은 鄧小平이 주도하던
현대화 計劃이 79년 6월의 5期 全八代 2차 회의에서 減速 수
정되기 까지 1년 넘게 계속되었다.

중공은 현대화의 우선순위를 중공업 대신 농업과 경공업으로 비
꾸는 한편 法制를 정비한 全八代의 결정으로 일단 4化의 재건제
획을 가다듬었다.

中共中央은 教條主義的 극좌파와 無政府主義的 민우파를 다같이
비난하는 공식입장을 취하며 党内 안정단결을 유지하려 한다.

그렇지만 새로운 추진세력으로 떠오른 陳雲派 경제관료집단이
4化工作을 전개함에 따라 党内에 存在하는 노선상 異見이 水面下
의 투쟁을 격화시킬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確生産力論과 三條毒草 비판

4個 現代化는 무산제급 문화대혁명에 앞서 마지막으로 열렸던
3期 全八代(64년 12월 21일~65년 1월 4일)에서 국무원총리
周恩來에 의해 처음으로 그 윤곽이 잡혔다.

文革의 소공몰이가 지난 후 철저히 정제된 중공의 산업을 수습
하던 周恩來는 75년 1월에 열린 4期 全八代의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本世紀內에 농업, 공업, 국방 및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실현

하여 社会主义 현대화 強國을 건설한다」는 4化의 추진을 재차 선언했다.

병중의 周恩來가 4化추진을 새롭게 한 이 1975년은 文革때 실각했다가 中공중앙부주석, 국무원 제 1부총리, 인민해방군총참모장의 權을 회복한 鄧小平이 가장 활발히 경제업무를 주도한 한해였다.

그런데 鄧小平의 4化추진은 75년 말에 이르자 文革派의 反擊 右傾翻案風의 소용돌이에 좌초한다. 鄧小平을 비롯한 當權派는 現代化를 거짓으로 농하고 자본주의 부활을 꾀하며 業務태풍, 經濟태풍을 일으킨 走資派로 몰려 무수히 규탄당한다.

周恩來 주도식들 제기로 촉발한 76년 4월 5일의 이른바 天安門廣場反革命事件으로 鄧小平이 당적보류의 파면을 당한 후에도 文革派는 批鄧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비판은 75년에 鄧小平이 내놓은 3개의 文件이 수정주의 강령을 계통적으로 표시하는 「三株毒草」⁴⁴⁾라는데 집약되었다.

10월 7일에 기초단 1만 5천자의 論總綱은 毛沢東의 인민내부모순처리 방법에 따라 일체의 단결力量, 일체의 적극적 因素을 동원한다는 전체 밑에 간부, 지식분자, 과학기술인원, 각 민족 및 경제정책상의 안정단결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관건이 되는 革命과

註 44) 三株毒草는 6개의 전국적 生産會議를 주재하면서 鄧小平이 제정한 論全黨全國各項工作的總綱(論總綱), 科學院工作匯報提綱(報提綱), 關於加快發展工業的若干問題(二十條)를 말한다.

生産의 관계에 있어 論總綱은 「生産과 경제건설에다 唯生産力論이란 修正主義 모자를 씌우는 일부 風士를 비난하고 革命만 잘하던 생산은 저절로 올라간다는 생각은 환상이라고 공박하고 있다. 당시에도 이것이 文革派를 가리킨 舊句임은 명백했다.

9월 2일에 기초한 1만 4천자의 20條는 기업관리의 개선, 선진기술의 채용, 노동비례에 따른 임금분배, 업무의 기율, 직공생활의 개선 등 공업개선책을 대담하게 다룬 것이다. 이 역시 제 1조의 工作總綱에서 無產階級專政理論의 학습을 머리에 두되 보다 生産에 유의하여 두 계급 및 두 노선 간의 투쟁을 삼가도록 요구하고 있다. 20條에 앞서 科学院 부원장으로 복권한 胡耀邦이 기초하여 8月 11日 鄧小平에게 제출한 3條報提綱은 과학기술공작의 조직, 과학지식분자의 경착, 과학기술 10개년계획 구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文革派가 三株毒草에 붙인 공동의 상은 계급투쟁을 외면하고 生産力 유일론을 제창한다는데 있었다.

工業 30條

76年 10月 4인방을 타도한 후, 毛沢東의 法統을 계승한 華国鋒이 제일 먼저 소집한 生産會議은 대규모의 제 2차 全國農業學大寨會議(76年 12月)였다. 그는 毛沢東이 수립한 大寨形 농업과 大慶의 공업의 兩面紅旗政策을 지지하면서 大寨縣의 전국적인 보급, 농업의 기계화를 주장했다. 大寨 운동의 주인공인 國무원

부총리 陳永貴도 「愚公移山」의 정신으로 중국을 개조한다는 自力更生의 구호를 되풀이 했다.

그렇지만 全國工業學大聯合會가 이듬해 5월 9일에 열리자 부총리兼 국가계획위원회주임 余秋里는 「思想은 變化하는 情況에 適應해 나가야 한다」는 毛沢東의 말을 인용하면서 集中, 民主, 紀律, 自由 그리고 人心情舒에 바탕한 政治局面을 강조했다. 경제관료인 余秋里의 이 말은 文革派의 平均主義에 대해 客觀的 經濟法則을 강조하는 新經濟政策의 전개를 예고하는 서곡이었다.

華国鋒과 타협한 鄧小平이 농식석상에 다시 나타난 것은 현대화 추진과 직결되어 있는 全國科學會議(77년 6월 20일~7월 7일)에였고, 華国鋒의 주재로 7월 21일에 열린 10期 3中全會는 鄧小平의 복직을 결정 통과시켰다.

당부주석, 국무원부총리, 인민해방군총참모장의 직위를 두번째 되찾은 鄧小平은 8월 12일에 시작하여 18일에 끝난 黨 제 11차 全國代表大會에서 1천 8백자의 폐막사를 말아 「빈소리는 그만하고 일을 많이 하자(少說空話, 多做事)」는 첫말을 꺼내며 4化 추진의 전면에 나섰다.

중방은 鄧小平이 주도하는 급격한 4化추진과 더불어 하루가 바뀐 선화를 시작했다.

북경당국이 中國共產黨 창립 57주년을 맞은 7월 1일을 기해 「새로운 시기에 總任務를 실현하는 強大的 사상무기」라는 제목을 달아 毛沢東이 자아비판을 한 中央擴大工作會議에서의 講話

(62년 1월 30일)를 처음으로 공표한 것은 현대화추진세력의 현실적 의도를 명백히 나타낸 것이었다. 毛沢東도 大躍進의 경제정책을 놓고 겸허하게 자기검토를 행했음을 강조함으로써 毛沢東의 위대성을 축소하고 毛沢東을 人間化하는 반면 客觀的 經濟法則을 擴大해 나가려는 출발신호였다.

7월 4일에는 鄧小平의 현대화정책 강령인 工業 30條가 전국單位에 하달된다. 그것은 鄧小平의 현대화정책에의 고집을 집약한 것으로 기업의 전면평리, 생산기술의 강화, 동력개발, 교통운수의 발전은 물론 선진기술도입, 기업자금과 기업운영의 개선을 망라하여 규정하고 있다. 工業 30條는 바로 三株毒草의 하나로 비판당했고 20條를 수정하여 完成한 것이다.

實踐派와 凡是派의 갈등

華國鋒, 葉劍英와 함께 4인방을 타도한 主體로 등장한 汪東興의 存在는 中共中央의 정치판도에 중요하고 미묘한 작용을 하게 된다.

實踐派와 凡是派가 毛沢東 이론을 둘러싸고 본격적으로 論爭을 일으킨 것은 工業 30條의 등장에 앞서서였다.

論爭은 實踐派의 이론가인 三胡(胡耀邦, 胡喬木, 胡統偉)가 주도하여 客觀的 經濟法則, 민주와 법제 그리고 核心이 되는 「實踐은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標準」의 3대 변론을 통해 진행되었다.

78년초 胡 邦이 상무부 교장으로 있던 中共中央黨校의 내부간

行物 「理論動態」가 「實踐은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標準」이라는 제목의 문장을 게재하면서 論爭은 시작됐다. 5월 11일에는 지식분자의 대변자 光明日報가 特約評論員의 이름으로 「毛沢東 주석의 言語라 할지라도 실천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위따랐다.

4인방 타도의 공으로 11全大会에서 당부주석 서열 4위의 자리에 오른 汪東興은 毛沢東의 政導를 옹호하는 凡是派의 대표적 인물이다. 중앙판공청과 중앙경위단(8341부대) 및 毛沢東선집 편집위원회의 요직에 있던 汪東興은 당이론지 紅旗 및 기관지 人民日報를 중심으로 하여 毛沢東 사상의 해석, 보호, 선전권을 지키고 있었다.

凡是派는 紅旗 등을 통해 實踐論의 공세가 이론상의 착오요 정치상의 반동이요 紅旗를 찍는 행위라고 반박했으나 脫文革, 反文革의 조류를 탄 實踐派의 大勢에 밀려 論爭에서 後退를 강요당하고 만다. 美·中 修交를 앞두고 벌어진 78년 말의 大字報운동을 배경으로 北京市委가 天安門 事件의 판결을 뒤집어 革命行動으로 선포한 것은 11월 15일이다.

3대변론은 78년 11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30여일간 진행된 中央工作會議과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거행된 11期 3中全會의 격렬한 토론을 거쳐 정치적 결론이 났다.

紅旗잡지 총편집 熊復, 人民日報사장 吳冷西는 陳雲, 許世友, 廖承志, 萬里 등의 공박을 받았으며 汪東興, 陳永貴, 吳德, 紀登奎 등 文革派 정치국원은 차례로 자아비판을 행했다.

華国鋒 역시 자아비판을 통해 4인방 분쇄직후 지나치게 毛沢東 教條에 집착하여 凡是派의 행동을 취했음을 인정하면서 大局의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리하여 경제전문가 陳雲이 당부주석 서열 4위로서 汪東興 앞에 나시고 신설된 中央紀律檢查委 제 1서기도 겸하게 되었다.

그밖에 胡耀邦(중공중앙비서장 및 선전부장), 姚依林(중공중앙판공청주임), 楊得中(8341부대政委), 楊勇(8341사령원), 胡喬木(毛沢東선집현집위원회 주임), 宋任窮(중공중앙조직부장), 胡統緯(인민일보 및 紅旗 총편집) 등 實踐派 계열의 인물이 진출하여 党的 선전조직기구를 모두 장악하고 凡是派의 실권을 크게 축소시켰다. 彭德懷(사망), 彭真, 陸定一, 薄一波 등 거불급의 복권과 4類分子(地主, 富農, 反革命分子, 叛壞分子)에 대한 広範圍한 특권이 確認된 것도 이때였다.

3中全会는 思想解放과 實事求是의 추구에 의해 現代化를 달성한다는 實踐論을 다짐한 법적수속이었다.

四項基本原則

3中全会가 결정한 思想의 해방, 党内민주의 회복으로 더욱 기세를 얻은것은 人權運動이다. 급진적인 4化의 전개를 위해 개방政策을 고무한 것이 鄧小平이다. 百花齊放과 百家爭鳴은 사회주의 예술발전과 과학진보를 추진하는 方針이라는데 現代化 추진세력의 추창하는 바였다.

北京市街 西單에 있는 民主의 壁 앞에서는 人權組織이 출판한 群眾參考消息, 四五論壇같은 지하간행물이 공개적으로 판매되고 人權大字報와 人權歌曲이 나붙었다. 中國人權同盟, 啓蒙社 같은 인권단체까지 등장하여, 79年 1月 28日 旧正을 기해 鄧小平이 미국방문길에 오르던 날에도 민주운동연합의 民主 구호는 북경을 시끄럽게 했다. 그 다양한 요구속에 2월 5일 上海市에서 下放政策에 반기를 든 청년들이 가두시위의 소요를 일으켜 國務院은 공공질서교란 행위를 嚴禁하는 긴급전화지시를 上海市 革命委에 내리게 된다. 黨內部에서는 신봉치 못한 對越징벌란과 성급한 現代化 計劃에 대해 비판이 가해지는 징조가 나타났다.

中共中央은 상승하는 民主化 요구에 제동을 걸 때가 왔다고 결심하게 되어 3中全会의 사상해방정책은 스스로 한계를 나타냈다. 민주운동의 과분함을 맨 먼저 공격한 것도 鄧小平이다. 그는 3월 16일 人民大會堂에서 열린 월남참전개선부대 환영집회에서 黨政간부를 향해 국가기밀을 外國에 누설하는 人權分子들의 대국생위를 공격했다. 중공의 여론기구는 이 발언과 때맞추어 즉각 「無政府主義的 民主」를 비판하고 나섰으며 3월말 公安경찰은 人權分子를 검거하는 바람을 일으켜 探索誌 주동자 魏京生 등 28명을 反革命分子로 체포했다.

實踐派의 거점인 北京市革命委가 민주화운동에 애기를 박는 通告文을 발표한 것은 3월 29일, 그것은 「社會主義, 無產階級專政, 中國共產黨領導, 마르크스-레닌主義 및 毛沢東 思想의 堅持」를

강조하는 이른바 4項 基本原則이다.

4項 基本原則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探索誌 같은 간행물은 계속 찍혀 나와 鄧小平에게 과격한 논조의 화살을 쏘았다.

鄧小平은 속임수로 人民의 신망을 얻은 뒤, 당초에 세웠던 야심적 현대화 목표에서 後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자 자신의 경제계획 실패를 인민의 희생으로 은폐키 위해 탄압을 가한다는 비난이었다.

동시에 4項 基本原則은 凡是派에게도 반격의 기회를 許用하여 새로운 관념상의 혼란을 조성한다.

凡是派는 3中全会 이후의 형세진전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들은 3中全会 이래 시행한 일련의 政策이 右傾의 산물이라 공격하고 3中全 路線과 4項 基本原則을 對立시켜 實踐派를 자승자박의 궁지에 몰아 넣으려고 시도한 것이다.

上海市委 기관지 解放日報가 「당면한 思想政治工作的 절박한 과제」라는 評論을 통해 實踐派와 凡是派間에 일어난 충돌을 처음으로 보도한 것은 4월 22일이다. 5월 12일의 先明日報도 「두줄기 사상노선을 분명히 가려 4項 基本原則을 견지하자」는 이론문장을 내고 中央工作會議에서 兩派가 격론을 벌였음을 시인했다.

先明日報의 문장은 「實踐이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標準임은

11期 3中全会의 승인을 얻은 方針인데 몇몇 동지가 원한을 품고 대 혼란을 몰아왔다. 4項 基本原則의 선포는 결코 그것을 곤봉처럼 휘두르라는 것이 아니다」 하고 凡是派의 행동을 비난했다. 解放日報 역시 5월 20일자에서 「관점을 달리하는 同志들이

행세의 主流을 보지않고 支流를 과장하며 本質을 보지않고 일부 현상에 미혹되었다」고 나무랐다.

4項 基本原則을 이용한 凡是派의 반격에 대해 實踐派는 極左와 極右를 다같이 견제하는 이론적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을 지킨다.

이런 입장은 實踐派 계열이 강악한 各者에 일제히 반영되었다.

安徽省委(제1서기 萬里), 北京市委(제1서기 林加乎), 四川省委(제1서기 趙紫陽) 등은 속속 공작회의를 개최하고 「한쪽으로는 3中全会의 결과를 부정하는 極左의 사조가, 또 한쪽으로는 4項 基本原則에 회의를 느끼는 極右의 사상이 출현하고 있다」는 경고를 되풀이 했다.

國民經濟 十年規劃의 修正

鄧小平의 4화주진에 제동이 걸린 징후는 3월말에 나타났다.

과도한 民主化를 許用한 責任때문에 鄧小平, 胡耀邦이 자아비판을 했거나 經濟政策의 不均衡 때문에 華國鋒, 鄧小平, 李先念이 자아비판을 했다는 미확인 보도가 흘러나왔다. 中共中央이 5期全八代 1차회의(78년 2월)에서 채택한 바 있는, 「國民經濟十年規劃」의 축소를 선포한 것은 4項 基本原則의 출현과 때를 같이했다.

3월 26일자 人民日報는 10年 經濟計劃이 집행과정에서 많은 결함을 들어냈다고 시인하면서 기본건설항목이 過大하여 현재의

財政擔當能力을 초과했기 때문에 不均衡을 전면 조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숨을 죽이던 自力更生의 3호가 工人日報(4월 30일자) 등에 다시 나타나 海外依存度가 지나치게 큰 既存 4化政策이 농업중심으로 수정됨을 間接的으로 시사했다.

경제가 落後하고 인구가 많은 中國이 일체의 것을 外國에 依存하여 現代化를 실현키는 不可能함으로 최종목표는 自力更生의 能力強化에 두어야 한다는게 工人日報의 論誌였다.

사실 3中全会 이후 그때까지 自力更生의 표본인 大寨인민공사에 대한 實踐派의 비판은 자주 있어왔다. 지난 2월 5일자 人民日報는 제 3차 農業學大寨 전담회가 과대한 선전과 모형에 2만 3천元の 예산을 낭비했다고 비난했으며 3월 12일자는 大寨公社가 있는 山四省의 비판대회에서 省委 제 1서기 王謙과 昔陽縣委부서기 李喜俱이 현실조건 및 效果를 외면하고 맹목적으로 大寨경험을 군중에게 강요하여 責任을 추궁당했다고 알렸었다.

그처럼 비판받던 大寨의 自力更生구호가 잠시나마 등장했다는 것은 凡是派의 壓力이 작용했었음을 뜻했다.

5월 1일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던 汪東興, 陳永貴, 紀登奎 등은 노동절 경축장에 參席하여 그들이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렸다.

推進勢力의 版圖 - 陳雲의 浮上

華國鋒은 毛沢東의 撥탁으로 文革 이후의 경제수습기에 中央에 진출했고 당제 1 부주석으로서 4 인방 타도를 주도하여 政權의 法統을 잇는데 성공했다. 그는 周恩來, 鄧小平 등 관료집단과 협조하여 4化工作을 수행한 經驗을 갖고 있다.

북경에 처음 진출한 1971년초 華國鋒이 勤務한 곳은 周恩來의 국무원 관공실이었고 부총리 兼 公安부장으로 돌출적인 승진을 한 것은 周恩來의 4化 政策報告가 있던 4期全人代에서였다.

鄧小平이 周恩來의 接수를 대리하던 75년에는 제 1차 全國農業學大槪會議(9月~10月 거행)에서는 「5년내의 농업기계화실현計劃」을 보고하여 現代化 政策의 중요한 발언자로 등장한다.

그의 보고는 中공중앙문건 21호를 통해 각지에 하달되었지만 江青 일파는 華國鋒의 「수정주의 農業政策」을 紅旗雜誌 및 學習과 批判誌에 전제하기를 거부했다. 華國鋒은 1974年 여름의 批林批孔 운동과 1976년의 党内走資派 비판운동때도 관료집단의 일원으로 물러 감시 공격을 받은 일이 있다.

또 鄧小平과 협조하여 75年 12月の 소련 헬리콥터 승무원 營환계획을 처리하기도 했다.

華國鋒은 주로 湖南省을 중심으로 농업합작사의 大槪운동을 추진하여 毛沢東의 주의를 끌었는데 토지관계를 다룬 湘陰調查와 농업합작사를 다룬 湘潭調查는 未來의 관료가 될 그의 소질을 나타낸 것이다.

농업관료로서의 이런 특이한 경력때문에 華国鋒은 새로운 4化 政策推進勢力과 곧잘 조화를 이루고 때로 제동작용을 하기도 한다.

華国鋒과 鄧小平은 4化의 목표에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나 달성 방법에는 기본적인 차이를 나타낸다.

양자의 견해차는 78년 3월에 열린 全国科学會議때부터 들어났다. 개막사를 맡은 鄧小平은 과학기술인원이 업무와 관계없는 정치이론학습에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를 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과학기술인원에게 매주 최소한 6분의 5의 업무공작시간을 보충하는 이른바 「六分之五」 규정(1956년 국무원 통지)의 한계를 넘어서는 발언이었다. 그가 低政治協商會議 主席으로서 지식분자를 위시한 각파의 統一戰線에 힘을 기울이며 「知識分子도 工人階級の 일부분」이라고 선언하는 것도 과학기술이 4化의 核心課題라는 그의 생각을 반영한다.

6일뒤 같은 科学會議에서 정부공작보고를 행한 華国鋒은 30여곳 현대화에 言及하면서도 「正確한 노선과 정치사상을 움켜쥐고 중화민족의 과학문화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鄧小平은 보다 대담하게 문호를 개방하여 外國資本과 기술을 吸收하기를 원하지만 華国鋒은 政治와 文化를 保存하며 經濟平均主義의 조화속에 4化를 실현하려는 쪽을 주장한다.

한편 陳雲의 등장으로 實踐派(實務派)안에도 經濟政策上的 異見이 나타나는데 하다. 그가 당부주석으로서 경제관료집단의 최고실무직에 오르면서 鄧小平을 정점으로 한 實踐派 안에 또 하나의

지휘부가 형성되었다는 觀測도 나온다.

陳雲은 49년에 이미 중앙정치국원이 되고 政務院副總理 兼 재정위원회주임, 중공업부장에 올라 당서열이 毛沢東, 劉少奇, 周恩來, 朱德에 이은 5위였다. 그는 周恩來가 제 1차 5個年計劃을 추진할때부터 재정담당 부총리로 활약하여 손꼽는 경제전문가라는 평을 들었다.

陳雲은 특히 天安門事件, 彭德懷 파문의 재평가를 강경히 주장하여 文革中 박해받은 彭真, 陸定一, 薄一波 등과 反文革派를 형성하고 있기도 하다.

79년 6월의 一冊全八代 2차회의에서도 薄一波, 姚依林을 이끌고 새로 부총리의 대열에 들어가 그의 경제관료그룹은 기초를 다졌다.

陳雲은 鄧小平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기도 했으나, 경제정책상으로 지나치게 급격한 鄧小平의 시행착오를 전면 수정하는 작업을 주도하여 새로운 현대화 추진세력으로 대두하고 있다.

이러한 政治版圖속에서 당주석 華國鋒과 全人代 常務委員長 葉劍黃은 中間派로서 명복상 최고 지도부를 형성하여 각파의 均衡을 잡는 지렛대 구실을 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최근에는 中間派와 陳雲계의 협조관계가 두드러져 전체적으로 鄧小平의 地位가 내려간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

V. 結 論

中国史의 近百年은 西歐列強의 威脅에 直面함으로써 融解된 現代化 推進을 위한 어려운 투쟁의 歷史라 해도 過言이 아니다.

그 現代化의 眞實한 課題意識은 半殖民地化에의 抵抗 오랜 停滯의 原因으로 看做된 半封建的 後進性의 払拭, 나아가서 富強國建設을 통한 中華復興 즉 民族的 自強心의 基盤構築이라고 볼이된다.

일반적으로 近代化란 産業化와 民主化의 實現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概念構成은 西歐社會를 아니라 오늘의 中共에서도 이미 第一章에서 引用, 考察한 바와 같이 異論의 餘地가 없다고 볼 것이다. 우선 經濟的 側面에서 볼때에 資本의 形成, 科學技術의 發展과 適用可能性, 教育의 普及, 生産資料와 原料確保 등 生産發展의 構成要素가 人口增加速度보다 빨리 增進된다면 現代化는 自然스레 進展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旧中国은 弱體政府, 貧弱한 輸送・通信手段, 變化와 進歩에 대해 有害로운 慣習과 思想體系 腐敗하고 非効率的인 官僚的 手續 등 沮害要因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그후 오랜 우여곡절을 거쳐 中共이 大陸에서 執權하되 旧時代의 遺物인 沮害要因은 얼핏 상당한 規模로 가쳐진 것 같으나 無慈悲한 人間蹂躪과 가혹한 一元的 統制가 恣行되었다는 経緯는 且置하고라도 前面的으로 國民大衆의 生産的 創意를 환기하는데는 未始하기 그지 없었다. 毛以後의 華國鋒, 鄧小平 體制에 이르러 비로소 일련의 積極的 構想이 實踐에 옮겨지기 시작한 것으로 觀측되지만

本論에서 이미 分析된 바와 같은 不確定 要因이 적지않게 散見되는 実情이다. 하나 現代化運動의 本軌道進入은 그곳 住民間의 合意成立을 前提로 不退轉의 것으로 되었다고 봄직하다.

특히 西歐式 敎育, 敎養을 갖춘 中國의 知識人들이 華, 鄧 體制下의 現代化 推進過程에서 점차 処遇改善과 比重増大를 感觸케 하고 있다. 自然科學者와 産業技術人員 外에 人文, 社會科學 分野에서도 知識人들의 影響力이 제 자리를 찾는 傾向에 있고 散員들의 社會的 地位도 向上 었다고 알려져 있다.

「民主化」와 「法治主義」, 「副憲開辦」 등을 표방한 1979 년의 法制改革, 圖式的인 重工業優先主義와 快別한 輕工業發展에의 力點設定, 勞動生産性 向上을 위한 物質的 刺激의 重視, 西方世界에 대한 各인종의 門戶開放, 外資導入에의 積極性 등 最近에 두드러진 中共의 「새바람」에 대한 評價는 그 現代化의 方法論에 과하여 일종의 「修正」을 관측케 하기도 한다. 일부 筆者들은 中共의 새現代化 路線이 共產主義의 方式보다도 예컨대 日本方式의 導入을 뜻하지 않는가 하고 점쳐보기도 한다.

하나 中共은 지금껏 單一한 価値體系가 支配하는 이른바 「프롤레타리아 獨裁」에 執着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産業資本系屬의 育成은 커녕 閥人, 實業家의 役割은 거의 認定되지 않는다. 利潤動機에 따른 競爭은 排除되었고 自由市場 經濟의 法則性은 作用할 수 없게 되어있다. 요컨대 中共의 現實은 마르크스·레닌主義의 原則性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하기야 巨視的으로는 中國의 近百年史 文脈 위에 中共의 最近 變化趨勢를 달리 位置賦與할 可能性이 排除되지 않는다. 이 경우의 주요한 關心事는 中共의 現代化 推進이 과연 그 나라의 自由民主化 따라서 마르크스·레닌主義의 포기에 連續될 것인가에 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19世紀의 「西勢東漸」은 東北亞에 대하여 衝擊的이었으며 亡國危機를 同伴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対応姿勢에는 韓國, 日本, 中國에 걸쳐 共通的인 局面이 적지 않았는데 中國의 対応姿勢는 다음과 같은 變遷의 段階를 設定케 하였다.

① 「扶清滅洋」 口號에 보는 바와 같은 鎖國的 排他主義, 이것은 西歐文明에 대한 全面拒否를 뜻하였으나 우선 實力對決면에서 지탱될 수 없었다.

② 洋務運動 「中體西用」論이라고도 일컫는다. 思想과 制度는 在來의 것을 守護하되 西洋의 발달한 科學, 技術과 新銳武器만 導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洋務運動은 淸日戰爭에서 新式武器 裝備로 보아 中國이 日本에 대해 遜色이 없었음에도 連戰連敗의 苦杯를 들어야만 했던 實際敎訓에 의하여 산산조각이 났다. 본시 近代化란 일부만 따올수는 없는 것이어서 科學, 技術로 말해도 그것을 키우고 자라게 한 바탕에 想到할 必要가 있었다.

③ 變法自強運動... 制度를 西歐式으로 고쳐 富國強兵을 도모해 보겠다는 것이다. 中國의 경우는 日本의 明治維新을 본떠 經濟權力의 所在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立憲君主制를 採択하여 폭넓은 西歐式 改業을 이룩하려 했다. 그러나 종래의 統治階層을 고스

란히 漫在해 둔채 몇몇 先覺者들이 皇帝를 업고 改革을 試圖하다 가는 早晚間 守旧勢力의 거센 鎮壓을 겪는 悲運에 逢着하게 마련이었다.

④ 革命運動 ... 이에는 國民革命과 共產主義 革命의 分岐가 觀察된다. 中國은 1949 年에 毛沢東에 의한 共產執權을 보는데 이르렀다. 西歐 起源의 思想을 全面 導入하면서 그 「純潔性」 固守를 표방하기도 했다. 그러나 中國의 民族史的 課題는 마르크스·레닌主義의 純潔性 固守 따위로 풀이될 바 아니었다. 또 社會經濟的 條件이 달랐으므로 그 適用은 비록 一時的으로 강대한 思想, 組織的 動員力을 과시한다 해도 民族史에 어울리는 現代化의 계속 추진에는 早晚間 沮害要因으로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⑤ 主體的 省察에 立脚하는 独自の인 綜合運動
1956 年の 中·蘇 紛糾 이후 對蘇一辺倒가 정산되면서 싹튼고 自主的으로 現代化를 추진하는 過程에서 西方文明을 再評價하게 된 오늘날의 中共이 모색하는 바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
하나 아직은 毛沢東 思想이라고 일컫는 마르크스·레닌主義의 中國版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笑靨이다.

하기야 共產主義란 긴 眼目에서 中國人の 歷史意識이나 民族的 人性에 뿌리내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收斂論 (Convergence theory) 라는 視角도 있다. 初期狀態는 달랐던 自由, 共產 兩體制가 産業化의 進展에 따라 마침내 政治 經濟體制에서도 서로 닮아가게 되리라는 立論이다.

共產主義란것도 요는 急速한 現代化 특히 産業化를 이룩하려는 하나의 選擇이었다고 본다. 이 점 鄧小平이 「흰고양이전 검은 고양이전 쥐잡으면 좋은 고양이다」고 한 말이 想起된다.

그리고 共產主義체제도 産業化의 進展따라 ① 專門화된 經營管理 ② 生産性에 의거하는 資金體系 ③ 価格과 費用에 대한 再認識 ④ 利潤動機의 介入 ⑤ 自由로운 消費者 選擇 ⑥ 計劃의 數學的方法 ⑦ 相異한 體制간의 交流, 勵力 増大 등 作用을 먼치 못하게 되며 결국은 體制差의 緩和 내지 類似化를 초래하리라는 것이다.

그런데 中共은 그 現代化를 推進함에 있어 ① 蘇聯, 東歐國으로부터 완전히 따돌림 당하고 있으며 ② 唯一한 國際經濟協力 및 技術導入의 大窓口는 오직 西方에 열려 있을 뿐이다. 그나라의 學校教育에서 第一外國語는 英語이지 露語가 아니다. 收判論의 適用되는 마당은 蘇聯보다는 中共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른다.

中共의 現代化 路線은 短期的으로 여러가지 難題와 問題點을 생각케 하지만 長期的으로는 그 本軌道導入을 展望할 수 있을 것 같다. 나아가서 그 現代化는 國際政治의 力學關係에 커다란 影響을 미치리라고 豫測된다. 中共의 現代化가 그나라의 自由化에 連結될는지 모른다는 可能性의 診斷이 우리의 持續的 關心事 중의 하나로 될 수 있겠다. 그러나 아직은 速斷을 일삼는 時點이 아니다.

ABSTRACT

MODERNIZATION POLICY OF COMMUNIST CHINA

Park Dong-woon

China has struggled to make her a wealthy and powerful state for one hundred years and several decades to the present in the impact of the expansion of Europe, after having been defeated in the Opium War.

The communist movement should be investigated in such a historical context, as Mao said in his treatise "On People's Democratic Dictatorship."

What Deng Xiaoping said; "It doesn't matter whether a cat is black or white as long as it catches mice." suggests that Some Chinese leaders regarded communism as a way of modernizing China. Furthermore, after the Mao's death in the year of 1976, a series of change occurring in the mainland China seems to be viewed that the direction of modernization of Hua Guofeng - Deng Xiaoping regime has been more interested in the model of Japan than that of communism.

This impression is felt in the point of the expansion of

capital and technology import from the west, the open-door policy in accordance with the enlargement of interchange, the consideration of material stimulus to improve the labor productivity, a series of democratization measures to develop the voluntary attitude of mass. Hua Guofeng said at the Second Session of the Fifth National People's Congress on June, 1979, "To realize four modernizations ranged over agriculture, industry, national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is to realize democratization of politics." The congress also made seven laws; the Criminal Law, the Criminal Procedure Law, the Law on Joint Chinese and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the Foreign Capital Inducement Law), the Electoral Law, and so forth. In the sense of meaning, these laws imply the principle of legality to guarantee human rights, the independence of judicature, the protection of foreign investor's profits, the abolition of upper line of foreign capital in the joint corporation, the permission of plural candidacy in the election.

But it is in the circumstances insisting still on the Party's leadership or the proletariat dictatorship, whereas denying the free marketing economic system.

Therefore it rests on a matter of concern how to match the principle of communism with the newly emerging pragmatism.

In the economic aspect, the operation of Communist China's modernization is in difficult situation because of its shortage of national investments and the unsatisfactory import of foreign investments to drive it forward, nevertheless her possession of great labor power and natural resources.

Therefore converting from her own direction, she attempts eagerly to trade with foreign nations and seek the way to import foreign investments in the form of joint venture and foreign technology, but it does not result successfully in performance of modernization.

According to statistics, the labor and capital productivities are not improving for a decade and some years. The plan of China's four modernizations is expected to be delayed for a long time.

In the aspec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China has developed a positive diplomacy to import advanced technology and foreign investments essential in this work, performing the four modernizations movement which is so called "New Long March".

The diplomacy of China which is combined with the diversionary tactics to the U.S.S.R., applying "Three World Thesis" as a basic foreign policy, established the cooperative relations with western advanced states, trying to make the Sino-Japanese Treaty of Peace and Friendship and establish a friendly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In the Second Session of the Fifth National Peoples' Congress on June, 1979, the foreign capital inducement promoting measure was made by the enactment and promulgation of Joint Investment Law together with the broad national reformation of preparing law system.

But it should not be passed over that four modernizations were frustrated a bit by change of foreign relations.

In the same congress, the Ten-year Economic plan which is a basic form of four modernizations was modified by adding the period of three-year mediation because of the too highly motivated plan itself and the excessive national defense expenditure according to the frontier war with Vietnam.

Gradually casting off the former policy of "Rehabilitation by One's Own Efforts", the result of the open-door policy of

Hua-Deng federation regime which is aimed for four modernizations is marvelous.

But also the resistance of national opposition power becomes fierce and it has connected with the change of international relations.

National consensus seems to be seen in driving modernization forward, even though various unsettled factors remain in national political situation.

It must bring about great change to the international power structure of the Korean peninsula, if China appears to be a power next to the United States and the U.S.S.R. as a modernized powerful socialist state in this century.

It's one of grave concerns, being connected with the change of political system, whether the modernization of China promotes her freedom and democratization or not. In the future, this possibility may not be excluded in terms of convergence theory, but we must not make a hasty conclusion in this stage.

